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제 12 회 정 기 총 회 및

'97 겨울 수련회 97. 1/2

지 / 역 / 사 / 회 / 목 / 아 / 소 / 연 / 합 / 회

서울시 중구 상송동 1가 상-하 여성문화의 집 3층 (주) 100-521 92 02 555-5335-4 FAX : 555-5335 ID : GTYIC(성리연)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연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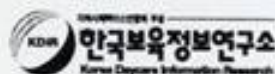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해드립니다.



서울 중구 목장동 18-27 대학문화원 426호 · TEL. 02)268-3954/271-1547~8 / FAX. 02)271-1548 · ID. KDIRBEBO(하이텔) ZPBABY(천리안)

보육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

97. 1/2



저 / 역 / 사 / 회 / 특 / 약 / 소 / 연 / 합 / 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 275-8505~6 FAX : 275-8506 ID : GTYID(천리안)

우리네 아이들

97년 1·2월 합본호

<통권 47호>



<표지사진>

97년, 소의 해
우리는 손과 마음을 모아 소처럼
우직하게 한해를 시작하기로 했다.
공동체놀이를 통해 확인한 동지애와
새로운 길의로
힘찬 한해를 준비하자

(사진 / '97 겨울수련회)

입아머 생각아머 / 4

소처럼 우직하게

남 미영

격의 특집 / 6

인권보육 커리큘럼을 위한 제언

堀 正嗣

10대 뉴스 / 10

1996년 여성운동 10대뉴스

편집부

보육정책 / 13

1997년 보육사업지침 요약

보건복지부

육아정보 / 20

공격적인 우리아이, 어떻게 하지요?

오 선영

자기전단 / 22

수용언어에 대한 교사의 자기전단

윤 선영

선년속지작연에 온 연아장 / 27

편집부

참관기 / 30

'97 시설장 연수 및 민보련 3차 정기총회

위 양자

'97 겨울수련회 & 총회보고 / 32

편집부

새입교 소개 / 34

'97 지박연의 새입교들을 소개합니다

편집부

연장소식 - 하나 / 38

자연에서 배우는 아이들-겨울캠프-

최 은경

연장소식 - 둘 / 39

함께 어우러지는 송년잔치를 마치고

한 혜정

짜임새

연장소식 - 셋 / 42

오 연환

함께 크는 아이들의 큰잔치

연장소식 - 넷 / 44

서 현경

애들아! 심심하지? 인형극 보러가자!

연장소식 - 다섯 / 46

김 지선

그림책나라에 놀러 오세요!

연장교육사례 - 1 / 50

김 연숙

영아교육활동의 사례

연장교육사례 - 2 / 53

박 인혜

아이들과 함께 요가를 배워봅시다

건강하게 삽시다 / 60

어린이 건강연구회

"한몸짓기 건강요법(2)"

박익스 별곡 / 67

부산 우리들의 집

좋은 그림책 소개 / 68

오 윤정

옛 이야기의 재미

육아일기 / 70

나 은미

"유빈이 엄마, 놀이방"

오빠들의 목소리 / 72

박 정희

보육교사로 사회의 첫발을!

박 종미

'97 겨울교사수련회를 다녀와서...

성명서 / 74

안기부, 노동법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며

소식과 소식 / 77

보육계 풍향 / 80

편집부에서 / 84

1997년 1·2월호 합본호 (통권 47호)
첫발행 1992. 5. 25 / 피넛 지역사회복지아소
연합회 / 피넛이 남미열 / 뽀로이 박정애, 정순
옥, 강예란 / 피넛날 1997년 2월 1일

일하며 생각하며

소처럼 우직하게

남 미영(본회 회장)

96년말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국회에서 7분만에 통과되는 장면이 뉴스를 통해 방영되는 것을 보면서 영유아보육법이 날치기로 통과되던 5년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묵은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는 지금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과 기대보다는, 거리에서 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목소리들이 가슴벅참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깨를 무겁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동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스스로 제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차근차근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보았던 한해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우리 내부에는 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 2년이 넘도록 당위로만 느껴졌던 교사 조직이 피부로 와 닿았고, 무엇보다도 큰 변

화는 노력의 성과들이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맞는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었던 한해였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힘이 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성과입니다.

지난 총회에서 그 성과들을 모아 우리는 (가칭)한국보육교사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간은 교사회 발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면서 서두르지 말고 한발 한발 내디뎌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같길래 이것이다'라고 자신하던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고 주위를 돌아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감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0년의 역사를 살려서 보육교사들의 진정한 대변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 책임이 따를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정 좋은 보육교사들이 되어야 할 준비와 실천들을 게을리하면 안될 것입니다.

보육을 둘러싼 정세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탁연은 올바른 보육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 것에는 변함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항상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직도 우리의 조건은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러나 지난 총회에서 지탁연을 향한 모든 회원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애정이 깃들

어 있었고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할 때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음을 확인했던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이든 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올해는 정축년 소의 해입니다.

소는 예로부터 느리지만 끈기와 인내가 있으며 우직하고 성실한 동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하고 또한 각 현장에서 보육교사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땅의 모든 보육교사들을 위하여, 그리고 항상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하여 정축년 소의 해에 소처럼 부지런해지고 온근과 끈기로 지치지 말고 보육교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가지고 있는 복을 서로에게 나누는
1997년이 되길 바랍니다. **지탁연**

인권보육 커리큘럼

인권보육 커리큘럼을 위한 제언 서문

- 밑으로부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

堀 正嗣 (일본보육정보센터 부소장)

-편집자주-

이 자료는 국제연합 인권교육 10년을 맞이하여 일본인권보육의 과제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한 96일본보육 대회 분과토론회 자료[인권보육커리큘럼에 대한 제언]의 서문입니다. '우리네 아이들'에서는 [인권보육 커리큘럼에 대한 제언] 본문을 3월부터 2회에 걸쳐 소개할 계획입니다. 본문 소개에 앞서 제언의 배경과 취지를 밝힌 서문을 실습니다.

아이들의 생활 터전 보육현장은 곧 아이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삶터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삶터가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곳이 되도록 오늘도 고민하고 있는 보육교사 여러분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과 머리 속에 들어있는 자신의 생각을 끄집어내 보고, 아이들의 생활과 공간, 아이들의 삶의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료가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 왜 이러한 제언을 하는가?

①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는 보육운동

자치노와 유아정보연구센터는 1980년에 제1회 보육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금년에 17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동안 보육내용·보육제도에 충실을 기하고 전국적으로 힘을 모으는 운동을 추진시켜왔다. 그러나 오늘날 보육운동은 과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금년 5월에 [유아의 권리 / 21세기 보육그림]이 만들어졌다. 이는 自治勞의 요청을 받아 발족한 [우리보육의 개혁을 생각하는 회]의 제언을 받아들인 것이다. 후생차관의 사적심의기관으로 설치된 보육문제점토회에

보육소 계약입소방식의 도입을 골자로 한 보육제도개혁안이 제안되어(1992), 보육제도 개혁논의에 불이 붙었다. 계약입소방식의 도입은 현행 보육제도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어서 많은 보육관계자의 반대에 부딪쳐 더는 들먹여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전후 50년을 거처온 현행보육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 보육제도의 전망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관점에 선 보육제도개혁안이 제언된 것이다.

현재 아이들과 부모들을 둘러싼 상황 속에서, 또한 21세기를 내다보며, 보육소는, 보육제도는 어떻게 변해야만 하는가, 하는 근

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우리는 이 제언을 토대로 사고를 보다 심화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② 보육내용 창조의 나침반을

보육제도를 에워싼 문제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보육내용의 창조라는 문제이다. 우리는 [동화]보육에서 제기된 [인권의 관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의 보육내용을 창조하려고 노력해 왔다. 매년 보육집회에서 [언어] [신체] [표현] [놀이] [자연] [건강] [장애아] 등 다양한 분과회로 나뉘어 보육내용에 관해 열심히 토론을 거듭해왔다. 그로부터 각지의 연구와 실천을 서로 교류할 수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인권의 관점에 선 보육내용창조의 줄기가 조금씩 명확해지는 동시에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로 1990년에 개정된 후생성의 [보육소보육지침]에는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기른다]라는 문장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 [신보육지침]은 소학교 이상의 교과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가르치지' 않으면 안되었던 종래의 [6영역]을 다시 고찰해보려고 시도한 점 등,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권을 중시하는 마음을 기른다]고 하는 [보육목표]가 어떻게 보육내용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쓰여있지 않다. 또한 [신보육지침]이 [자유보육의 제창]으로 받아들여져, 명확한 근거가 없는 [자유]에 내맡겨지는 경향도 보인다.

보육내용을 조직하고 일상의 보육을 진행시켜 가는 명확한 관점이 오히려 약화되어서 자신들이 설 위치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조차 든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보육의 미래를 궁리해나가기 위해서는 보육제도와 함께 보육내용에 관해서도 명확한 나침

반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현재의 요구이다.

③ 인권의 관점에 선 보육을 모든 보육소에

우리들이 진행시켜 온 것은 [인권의 관점]에 선 보육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올해는 [국제연합인권교육 10년]의 두번째 해이다. 우리들이 요청 받은 것은 [인권교육 10년]에서 제창되고 있는 것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국제연합인권교육 10년]은 [인권의 문화를 세계 속에서 이룩해낸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이야말로 인권의 관점에 선 보육을 모든 보육의 장에 넓혀나가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육소의 보육 그 자체가 [인권의 문화]가 되는 그러한 보육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인권의 보육]을 저마다 보육의 장에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제언은 그러한 관점을 명확히 하려는 논의의 기초작업으로서 이루어졌다. 저마다 보육의 장에서 이 제언을 토대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보육집회에서 보육내용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켜가는 토대로서도 활용되기를 바란다.

2. [제언]의 기본적 사고방식

① 교사의 생활방식을 다시 평가한다.

제언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인권보육 커리큘럼]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교사가 자신의 생활방식을 다시 평가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커리큘럼]은 선생님이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충분히 지식과 기술을 지닌 교사가 그것을 지니지 않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조직된 [전달형 커리큘럼]으로 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커리큘럼] 이전의 일상생활 그 자체가 [인권을 중시하는 분위기]에 싸여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아이들은 보육자와 부모, 교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날마다 배우는 것이다. 보육자와 부모가 인권을 중시하는 생활 방식을 지닌 사람이 아니면 진정한 인권보육을 이루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 [인권]은 커리큘럼 상으로만 되고 일상생활에 뿌리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공허하게 된다. 그러한 인권보육은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아이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다.

반대로 인권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을 가진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행하는 보육은 절로 인권을 중시하는 보육이 되게 마련이다. 그 속에서 아이들과 날마다 상호작용하면서 인권을 중시하는 마음과,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전달해줄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생활방식을 재평가해보지 않는 인권보육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들은 보육자와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생활인이다. 어른이 생활인으로서 마땅히 인권을 중시하는 삶의 방식과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는 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권보육은 보육하는 교사 자신의 생활방식을 되돌아볼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차별의식이나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와져서, 인간이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② 더불어 사는 아이들이 되기를

'인권보육10년'에는 '①인권을 위한 보육, ②인권으로서의 보육, ③인권을 통한 보육,

④인권에 관한 교육'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인권교육'을 다루었다. 우리들이 보육의 문제를 고찰할 때에도 '인권보육'의 개념에 관하여 제기해보고 싶다.

우선 '①인권을 위한 보육'이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와 개인을 길러내려는 보육이다. 이러한 목적을 뚜렷하게 자각하며 보육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②인권으로서의 보육'이란 보육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아이의 인권이라는 점이다. 한때 피차별 부락의 아이가 보육소에 다닐 수 없다든지, 장애를 지닌 아이가 입소를 거부당하는 상황이 있었다. [동화]보육과 장애아 보육운동을 벌이면서 [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보육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확하게 되었다. 장애아와 소수민족 아이들의 [②인권으로서의 보육]을 무시하는 곳에서 보육내용으로서의 [인권보육]이 이루어질 리 없다. 모든 아이들의 [인권으로서의 보육]을 보장하고 함께 생활하지 않는 곳에서는 결코 인권보육이 시작되지 않는다.

[③인권을 통한 보육]이란, 일상의 보육소 생활이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아이차별]의 문제에 민감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미숙한 존재로, 교사가 무언가를 가르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틀림없이 정확한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강제성과 제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벌과 관리가 용인되는 풍조가 나타났다.

아이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다. 그러나 그것은 교사가 아이를 자기 생각대로 관리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아이들은 미숙한 존재다 라고 여기는 [아이 역시]

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은 [관리하고-관리되는] 교사와 아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인간으로서 아이들과 다시 만나야 한다. 그것이 [어린이 권리조약]에서 말하는 Participation (공생)의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보육이 그야말로 [아이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보육이었는가, 보육 속에서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없었는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체벌과 속박을 가하는 보육(관리 보육), 능력주의 보육을 우리가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떤지 질문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인권을 통한 보육]이라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모든 커리큘럼에 인권의 관점이 관철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또 보육소를 예전의 [공터]와 같은 아이들의 세계라고 본다면 커리큘럼은 당연히 [아이들이 주체가 되는 커리큘럼]이 되어야 한다. 이과 같이 [커리큘럼]의 본질과 성격규정 그 자체를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④인권에 관한 보육], 즉 인권 그 자체를 직접 내용으로 삼은 보육이 있다. 그러한 보육의 내용과 방법을 만들어내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기울여왔다. ①에서 ③까지를 토대로 내용과 방법을 재검토하고 심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3. [제언]의 활용과 작성과정

① 각지에서 [인권보육]을 만들어내는 운동들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지만, 이 [인권보육 커리큘럼]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은 보육의 장에서 저마다 [인권보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근거로 삼게 될 기본적인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러한 논의의 토대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보육지침]과 [교육요강]처럼 top-down으로 커리큘럼과 보육내용을 규정하려는 것과 정반대의 사고방식이다. [글을 읽은 그대로 믿으면 읽지 아니함만 못하다]라는 맹자의 말이 있다. 이 제언이 일종의 [보육지침]처럼 받아들여진다면 제언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보육 커리큘럼]은 저마다 보육의 장에서 만드는 것이다. [보육 커리큘럼]이란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만드는 생활의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야 마땅하겠다. 우리들이 바라고 싶은 것은 저마다 보육의 장에서 이 [제언]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커리큘럼을 다시 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육의 장에서 저마다 개성 있는 [인권보육]의 작풍을 만들어내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② [제언]의 작성과정

금년 전국보육집회에서 [국제연합 인권교육 10년과 일본 인권보육(교육)의 과제] 분과회를 어린이정보연구센터가 담당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스즈키쇼조 소장을 중심으로 [인권보육커리큘럼 검토회]를 조직하였다. 이 [검토회]에서 아이들의 인권, [동화]보육, 장애아보육, 자연, 신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권보육 커리큘럼에 관한 검토를 하였다. 그 성과를 받아서 스즈키쇼조 선생이 집필하여 [제언]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제언을 더욱 입체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인권보육 커리큘럼 검토회] 참가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제언]을 둘러싸고 핵심을 찌르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시간적인 제약으로 말미암아 불충분한 점이 있을 지도 모르겠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탄 없는 의견을 제기해주면 감사하겠다. [제언]

여성계 10대 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정한

1996년 여성운동 10대 뉴스

편집부

1.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청원

가정폭력은 여성, 아동, 노인 등 약자에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사회적으로 가족해체의 주 원인이며 결국은 또다른 사회폭력으로 연결된다. 가정폭력을 부부간의 문제나 개인적, 개별 가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심각한 폭력이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은커녕 경찰이 관여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0여년간 가정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해 오던 한국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여연내에 12개 여성단체로 이루어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발족했고 변호사들과 함께 가정폭력방지법안을 완성했다. 이후 특위는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전국규모의 22개 여성, 사회단체로 구성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전국 각지에서 가두 서명운동, 법률시안 공청회, 문화행사 등을 전개했고 8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10월 31일 이미경 의원 등을 소개위원으로 청원서를 접수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중이다.

2. 쿠마라스와미 UN 특별보고관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사죄·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

1996년 3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국제법상 불법 행위로 규정한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보고서의 채택은 53개국 대표가 참가하는 유엔 인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대표들이 동의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큰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는 정부의 철저한 외면 속에 여성단체들의 외롭게 시작된 운동이 국제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켜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여성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3. 공권력에 의한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고소 고발

8월 20일, 연세대 종합관에서 진압경찰에 의해 다수의 여학생들이 성추행과 언어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여성, 인권단체들과 피해여학생들은 몇 차례에 걸친 진상조사 요구 끝에 국민에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고소, 고발을 하였다. 여학생 7인의 고소와 여성·인권단체의 고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동안 비밀비재하게 일어났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대중에게 알려내고 여성인권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4. 여성발전 기금 조성 및 성차별개선위원회 구성

여성발전기본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건의하였고 그 결과 중앙부처에 100억이 조성되었고 전라북도에서는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심의 중에 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회에 민간 여성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운동도 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법·제도·행정조치 및 관행 등에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성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에 성차별 의식과 관행을 바꾸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이효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가 5공인사와 함께

선정된 「여성발전과 지위향상 유공자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을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거부

지난 6월28일 국민훈장 석류장에 선정되었던 이효재 공동대표(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정무장관(제2)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전두환씨를 위대한 지도자로, 5공의 대통령으로 추대한 5공의 대표적 여성인물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현정부의 역사 바로세우기와 정면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국민훈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무원칙한 선정"이라며 훈장을 거부하였다. 이효재공동대표의 국민훈장거부는 많은 시민들에게 진정한 역사 바로세우기 정신을 몸소 보여주시는 사례라 할 수 있다.

6. 인위적인 성비파괴에 경종 울린 태아성감별 의사 구속

1996년 10월 1일, 아들을 바라는 임신부에게 돈을 받고 태아 성감별을 해준 산부인과 의사3명과 조산사 등 4명이 처음으로 구속되었다. 이는 그동안 아들을 낳기 위해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태아성감별과 인위적인 성비파괴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994년 현재 우리나라의 남녀출생 비율은 115.4대 100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80년 105.3대 100으로 세계평균이던 것이 1980년 중반부터 급격히 높아져 1993년 115.5대 100으로 남녀성비의 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이 태아성감별을 요구하고 이는 결국 출생에서부터 남녀차별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건이 우리사회의 가부장제 의식, 남아선호사상 등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7. 공무원 5.7급 채용목표제 실시

세계화추진위원회(이하 세추위)는 1995년 10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시책을 마련하고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중, 단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여성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말 공무원 임용령, 지방 공무원 시험령을 개정하여 목표제 개념의 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그 근거 규정을 만들었으며 96년 10%, 97년 13%, 98년 15%, 2000년 20%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5급 행정, 외무고시 및 7급 행정, 공안, 외무행정직 공채를 실시하여 96년 3월 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 커트라인 3점 아래 여성을 1명 추가 합격시킴으로써 채용목표제를 처음 실시하였다. 정부가 먼저 여성채용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채택했고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된 점에서 의의가 있다.

8. 농협법 개정으로 여성농민들의 농협조합원 가입 가능

95년 6월 농협법이 개정되어 원래 1가구당 1인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주어 과부 외에는 여성농민이 조합원이 될 수 없었던 가입규정이 1가구 2조합원으로 개정 확대되어 여성농민들이 농협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애초에는 연로한 기존 조합원 중심으로는 농협의 사업확장과 농업 구조개선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농협법이 개정, 확대되게 되었다. 그러나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는 개정된 조합원 가입규정을 여성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여성농민이 가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여 ①한 가구내에서 업종을 달리하는 경우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육성, 지원하는 후계자, 전업농 및 후계세대 가구 ③ 55세 이상의 기존 조합원이 영농을 상실한 경우 등 3개의 정관규정을 농림부가 수용하게 함으로써 여성농민 상당수의 조합원 가입을 가능하게 했다. 처음으로 법, 제도 내에서 여성농민을 농업인으로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9. 고용불안, 정신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개최

최근 들어 부쩍 활발해지고 있는 국제회의는 주로 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슷한 문화와 언어권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몽고 등의 동아시아지역 여성들의 만남과 교류의 장인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이 지난 8월22일~24일 서울에서는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정신대문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일본에 의해 자행된 성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동아시아여성 공동의 입장이 표명되는 성과가 있었다.

10. 산업화과정에서 드러난 여성문제에 관한

「한국-중국-베트남 심포지움」 및 현장 방문 프로그램 개최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대회에서 만난 한국,중국,베트남 삼국의 대표들의 제의로 1996년 한해에 걸쳐 한국,중국,베트남 교환프로그램이 각각 삼국에서 개최되었다. 5월1일~10일에는 한국에서, 6월24일~7월5일에는 중국에서, 9월4일~9월14일에는 베트남에서 각각 개최된 이번 프로그램은 여성들의 회생을 요구하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조직을 결성하여 여성권리 확보를 위해 싸워온 한국의 경험을 중국과 베트남의 여성들에게 전수해주는 기회가 되었다. 서면인

보육정책

'97년 보육사업지침 요약

보건복지부

편집자주 : <'97년도 보육사업지침>이 확정, 시달되었습니다.

본회에서 '96년 보육사업지침을 비교분석하여 보완되어야 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내용중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진 점을 환영하며, 본회는 아직 보육사업지침서를 받아보지 못한 관계로 한국보육시설연합회 기관지'보육'지에 실은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보육사업을 수행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본회는 2월중 보육사업지침서를 다량 확보할 예정이오니 필요하신 분은 본회로 직접 신청하시길바랍니다.

구 분	'97년도 지침	비 고
I. 보육사업추진계획	<추진방향> '<보육사업시설확충계획(95-97)>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련제도를 보완하여 영유아보육의 기반을 확립하고,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확대,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 등 보육의 질적수준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장애아 및 영아보육의 활성화, 방과후 보육사업의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시설확충3개년계획 반영
(1)보육시설확충	신규설치: 1,100개소 -신 축: 150개소 -중 축: 125개소 -부설설치: 825개소 신규설치: 1,548개소 '3,997개소	
(가)공공보육시설확충		
(나)직장,민간시설확충		
(다)국고보조시설운영		
(2)보육의 질 제고	'18.9%인상 '개인교육원 법인화유도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추진 '장애아보육프로그램,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안전보육프로그램 등 4종 개발	
(가)보육교사 처우개선		
(나)교육원 운영		
(다)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3)농어촌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	농어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강화 -취사부 1명 인건비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현행50%→70%) '저소득층보육료 지원확대 -지원대상자 확대 (58→77천명) -지원수준 상향조정(3세기준:월35→44천원)	
(4)보육사업 제약요인 개선	'시설설치 제약요인이 되는 관련법령 개정 추진 -교재교구 특소세 면제, 보육시설용지 농지전용부담금 및 농지 조성비 감면(농지법, 농특법, 특별소비세법 등 개정)	

구 분	'97년도 지침	비 고
(5)보육사업 지원체계 강화	-정부미 우유 저가공급, 전기, 수도요금 경감 '보육료 소득공제 제도 신설 -재정경제원과 협의 추진 '보육정보센터 확대 설치 -97년초에 광역시 단위에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고 '98년 까지 전국 시·도단위에 보육정보센터 확대 설치 -중앙보육정보센터와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보육정보센터와의 연계체계 구축 '보육종합정보망(KDA-NET)운영 활성화 -중앙보육정보센터에KDA-NET구축('96.10월말 개통) -다양한 보육정보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아동보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보육시설에 컴퓨터를 보급하여 보육정보망 이용확대 '보육사업 행정지원체계 강화 -보건복지부에 보육과 신설(총무처 협의중)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 설치 및 인력보강 추진(내무부 협조)	
5. '97보육사업예산	'총 액 : 2,924억원 -국 고 : 1,337억원 -지방비 : 1,587억원	'23%증가
II보육시설의 설치 인가시 유의사항	(5)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 설치시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첨부하여 신청	'소유주의 동의서작성
III보육시설의 운영 5. 종사자 관리 라. 종사자 경력인정	(라)'96년말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보육시설에 근무중인 종사자가 '97.1.1. 이후 타지역(전국단위)에 소재하는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길 경우 '96년말 현재 인정 받은 경력(호봉)을 전부 인정하여 호봉을 산정한다.	'보육시설종사자 경력(호봉)인정제도 예)'96년말 현재 4호봉인 종사자(1.1 일 호봉승급자)가 '97.1 에 다른 시설로 옮길경우 5호봉으로 확정
6. 보육료 나. '97년 보육료	(1)표준보육단가(단위:천원) 구 분 2세미만 2세 3세이상 국공립 213 176 109 민 간 304 247 148 가 정 325 325 179 (3)장애아보육료 2세영아 표준보육단가적용(단, 중증장애아는 2세미만 표준보육단가 적용) (2)보육료 구분 (가)법정저소득층 보육료 간식비 등 일제 수납금지	'4.7%인상 '6.6%인상 '4.8%인상 '장애아보육 지원확대에 따른 보육료조정 '법정저소득 보육료지원의 80%에서 100%수준으로 상향조정에 따른 조치
다. 보육료수납		
9. 장애아,영아전담보육 시설 지정,운영 가. 지정기준	(1)시설 종류별 규모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영아전담보육시설 (2)영아전담보육시설 -상시 영아 30명 이상 (1)국고보조 보육시설 (가)장애아 또는 영아를 전담하기 위한 보육시설 설치시 신,증축비 우선 지원	

구 분	'97년도 지침	비 고
	(다)장애아 또는 영아보육에 따른 소요보육교사(특수교사 및 치료사(심리,언어,작업,물리)포함) 100% 인건비 지원 *치료사는 장애의 유형을 고려, 필요한 인원내 한함 (라)농어촌 보육시설에 준하여 취사부 1명 인건비 및 차량 운영비 월12만원 지원 (3)지방비 확보 추가지원 장애아,영아전담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인건비, 각종 치료사 인건비, 장애아보육 특수시설 설치비 및 각종 장비비 등을 지방비로 확보하여 최대한 추가지원 *서울시의 경우 장애아 및 영아 전담시설의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여 장애아 또는 영아(0세)3명당 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추가 소요교사 인건비를 시비 및 구비로 지원	'지원수준 상향조정 및 특수교사와 치료사 인건비 '취사부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추가지원 '장애아 및 영아보육에 대한 지방비 확보 지원근거 마련
IV보육사업 국고보조 업무 수행지침 1. 목 적 2. 방 침	라. 공공보육시설의 설치는 지역간 균형배치되도록 하되, 농어촌 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사.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설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추진 (1)장애아 또는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설치비 등 우선지원 <지원방향> '운영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시설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강화 '장애아 및 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및 시설기능보강비 지원확대 '공공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도모	'공공보육시설의 지역간 균형배치 및 취약 지역 우선 설치 유도 '장애아 및 영아보육 활성화
3.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가. 저소득층 보육료	(3)기타 저소득층 지원기준 (가)가구원수별 소득기준 -2인 까지 : 90만원 까지 -3인 가족 : 100만원 까지 -4인 가족 : 110만원 까지 -5인 이상 : 120만원 까지 (나)소득조사방법(기준) 1)소득조사는 「'97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지침」(복지부아동 65210-2122 '96.9.20)에서 정한 기준에 의함 2)농어가(양축가 및 임가포함)중 1)의 기준으로 소득 파악이 곤란한 농어가에 대해서 '97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지침(농림부)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4)정부지원단가 (가)법정저소득층 -2세미만 : 213천원 -2세 : 176천원 -3세이상 : 109천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96년말 1월 가족기준 월 2,223천원)의 50%수준 이하 가정 '소득파악이 곤란한 농어가에 대한 소득조사기준 신설 '지원수준 상향조정 -표준단가의 80→100% '31%인상 '29%인상 '33%인상

구 분	'97년도 지침	비 고
나. 시설 운영비	- 국고보조비율(%) (국고 : 지방비 : 자부담) -서울 15 : 85 : - -지방 50 : 50 : - (나)기타저소득층 -2세 미만 : 85천원 -2세 : 70천원 -3세 이상 : 44천원 (1)종사자 인건비 (가)대상시설 1)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12호에 의한 시설 2)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시설(노동부에서 설치지원한 근로청소년화관내 보육시설 포함) (나)지원기준 1)국'공립 및 비영리법인 시설	- 자부담 폐지 - 표준단가의 34%→40% 21%인상 21%인상 26%인상
	나)추가지원:①영아반은 기본유형외에 실제 추가운영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교사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추가지원 ②농어촌시설(읍·면지역, 폐광지역 및 도서벽지)은 보육교사 및 취사부 각1명 인건비 추가지원 다)장애아 및 영아전담보육시설은 보육교사(특수교사 및 치료사(심리, 언어, 작업, 물리)포함)소요정원의 100% 인건비 및 취사부 1명 인건비 지원 (다)시설별 지원기준 유형 및 지원기준 3)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장애반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 장애반 운영에 소요되는 법정교사 인건비 별도 지원 (라)지원내용 1)종사자인건비 가)보급 '지급대상 :원장,보육교사(특수교사 및 치료사 포함), 취사부 '취사부는 농어촌시설 및 장애아,영아 전담시설의 종사자에 한함. 나)상여금 -채택단련비: 월 봉급액의 100% 2)종사자 수당 가)직급보조비 '지급대상:원장,교사,취사부/지급액(1인당월) -원장:50,000원 -교사:30,000원 -취사부:20,000원 마)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 : 교사,취사부 '1인당 월 30,000원 정액지급. 단,1일 3시간이상 초과 근무시 3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추가지급 사)교통비 '지급대상 : 원장,교사,취사부 지급액 : 월30,000원 아)장애아,영아담당수당 '지급대상 : 장애아 또는 영아반 담당교사 '지급액 : 월50,000원 (2)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97년 부터 노동부에서 복지부로 이관 -전국 10개소 '정부지원시설의 개념에 각종 부설설치 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용어를 명확히 정리 '지원수준 상황조정 '농어촌시설에 보육교사 1명 추가지원 '특수교사 및 치료사를 포함하여 100% 인건비 지원 '장애아보육 활성화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지원강화-특수교사,치료사 및 취사부 인건비지원 '채택단련비100%신설 '명칭변경 '원장포함 '직급별 차등 지급 '지급대상확대 '교사 및 취사부 전원에 월3만원 정액 지급 및 추가지급 '교통비 신설 '장애아 및 영아보육 활성화

구 분	'97년도 지침	비 고
다. 시설기능 보장비	(3)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시설당 연 1,440천원(월12만원) (4)국고보조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나)인건비 지원기준 인건비는 「'97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에 따라 하되, '센터장'은 '시설장', '보육지도원','간호사 및 영양사'는 '특수교사','사무원'은 '관리인'의 봉급액을 적용 (다)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 시도에 승인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함) (1)시설신축 (나)지원규모 개소당 264㎡(80평)를 기준으로 신축 또는 매입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보육수요 및 토지확보면적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지원 가능 (다)지원단가 704,000원/㎡(국고,지방비 포함) (2)시설 증개축 (나)지원규모 1)개소당 132㎡(40평) 기준으로 증축면적에 따라 지원 2)시설 및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1개소에 2개소의 사업비 지원 가능 (다)지원단가 704,000원/㎡(국비,지방비 포함)	'지원금액 상황조정 '인건비 적용기준 보완 '예산 편성 및 집행절차에 대한 시도의 지도, 감독 강화 '보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 지원 '단가 인상 '보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 지원 '단가 인상
4. 국고보조비율(%) (국고:지방비:자부담)	'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수당포함) 서울 : 15 : 75 : 10 지방 : 50 : 40 : 10 -기타시설운영비 서울 : 15 : 65 : 20 지방 : 50 : 30 : 20 '저소득층보육료 서울 : 15 : 85 : - 지방 : 50 : 50 : - '시설기능보장비 서울 : 40 : 60 지방 : 40 : 6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96.12.31) '기준보조율의 정의변경(동시행령 제5조) -종전에는 국고 대 지방비의 비율 '개정후에는 국고, 지방비 및 자부담 총액 중 국고가 차지하는 비율 *보육사업 보조금 예산의 기준보조율 -종전(운영비) 서울 : 20 : 80 지방 : 60 : 40 개정후(운영비) 서울 : 15 지방 : 50
VI 보육교사교육원 운영 8 교육원의 수강료	가. 총칙 (1)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강료 수납한도액(교재비포함)을 정하여 통보한다.	'수강료수납 한도액에는 교재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구 분	'97년도 지침	비 고
9. 교육원 신규위탁 정 지 및 운영내실화에 관한 조치 가. 교육원 신규위탁 정 지	(2)교육원은 수장료 수장한도액 범위안에서 관할 시. 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과과정별 기본교재로서 표준교 재 등을 채택하여 보급하고자 할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장료 수납 한도액(단위:원) 과정별 표준수장료 수납한도액 양성교육 756,300 976,000 보수교육 26,000 34,000 *전행료(원서대 포함)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설비수납 가능	'표준교재 등을 기본교 재로 채택하여 보급하 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 의 승인을 받도록 함 '국립대학교 등록금 인 상율(5%)반영 '전행료는 실비로 별도 수납이 가능토록 개선
VII. 직장 및 보육시설 설 치자금 융자계획 2. 사업추진계획 나. 사업계획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집행 라. 시청 및 사업자 선 정	(2)교육원이 없거나 1개소에 불과한 도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 합후 건설한 운영이 예상되는 대학에 한하여 신규위탁을 예 외적으로 각 1개소만 인정함 '융자금액: 2,000억원 '사업량: 1,584개소 (1)신청 (가)신청기간: '97.1.10~'97.2.20 (2)사업자 선정 사업자의 담보제공능력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야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개정 (96.1.6)규정 반영 -신규위탁은 관련학과 가 설치된 대학에 한정 '보육시설확충 3개년 계 획 반영 '신청기간 연장
바. 사후관리 및 보고	(2)융자금의 사후관리 (나)사업자의 선정취소 및 융자금 회수 1)융자금 또는 융자금을 받아 설치한 보육시설을 기타 목적에 사용할 경우 2)특별한 사유없이 융자금 수령후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을 경우 3)특별한 사유없이 사업계획서에 의한 공사준공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경우 4)특별한 사유없이 시설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건물 매 입비의 자금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육시설을 인가 (신고)받아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라)사업자가 융자받아 설치한 시설을 타지역으로 옮길 경우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함 (마)융자시의 명의 변경 1)명의 변경 대상자 가)융자사업자가 사망, 자격상실(금치산,한정치산선고), 파산, 이민의 경우 나)융자사업자가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시.도지 방보육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명의 변경 2)명의 변경 절차 가)사업자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유, 인수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담보능력 최우선 고려, 융자 추진후 포기 사례 사전 예방

구 분	'97년도 지침	비 고
4. '97년 융자금 집행 시 유의사항	나)시.군.구청장은 서류검토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다)시.도지사는 서류검토후 명의 변경, 허용여부를 결 정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위 1)-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함 라)시.군.구청장은 사업자 및 해당금융취급기관에 통보 마)금융취급기관은 인수.인계완료후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바)융자시설의 법인전환시 업무처리 1)융자금 상환후 법인 전환 2)융자금이 법인출연 기본재산의 50%미만의 시설로서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면밀 히 검토하여 융자금 상환 및 보육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다 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허용(출연기본재산에 담보 권이 설정된 경우는 원천적으로 불가함을 유의) <'97년도 융자금 미집행액이 '97년도에는 이월이 불가 하므로> 가. 2억원이 넘는 융자금중 '96년도에 집행되고 나머지 미집행액은 '97년도 융자금에서 집행 나. '97년도 추천을 받았으나 융자실행(기성고에 따라 분 할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초 대속실행)이 되지 않은 경 우 융자추진이 취소됨. 다. 시.도 및 시.군.구 조치사항 (1)융자금 미집행을 파악하여 '97.1.15까지 시.도에 보고 (2)시.도는 '97.1.31까지 복지부에 보고	'융자금 이월집행 불가 (2억원이하 소규모 융자 금은 여신관리 자금 계 좌제도에 의거 문제가 없음) '복지부아동65210-2380('96.10.24)호 공문 참고

육아정보

공격적인 우리아이 어떻게 하지요?

오 선영(한국보육정보 연구소)

누구나 자신의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기란 상당히 힘들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어른들보다 더욱 의도치 않고 통제되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므로 공격적인 행동이 격렬하게 나타나는 아이를 대하면 그 아이의 공격성을 "악의"라고 단정하기에 앞서 먼저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의 종류와 그 원인에 대해 관찰을 통한 해결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공격적 행동은 흔히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잘 때리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빼앗아 부수어 버리거나 부모나 교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고집부성으로 지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해적 공격성이 있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수줍어하는 착한 아이다가 갑자기 발끈 화를 내거나 화가 나면 악을 쓰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행동을 속상해하고 뉘우치는 발끈 치미는 화가 있다. 또한 걸으로는 굉장히 얌전하나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자기 동생을 때리고 물어뜯지만 누군가 자기 자신

을 보고 있다고 생각되면 금방 다시 친절하게 대하는 엉큼스런 가해 행동이 있다. 이처럼 계속적으로 가해지는 공격성, 발끈치미는 화, 엉큼스런 가해행동 같은 행위는 잘못된 유도된 파괴적 활동으로서 이를 일반적으로 공격적 행동이라 한다.

아이가 어떤 공격적 행동을 보일 때 그들은 대개의 경우 정서적으로 흥분되어 있다.

아이가 어떤 공격적 행동을 보일 때 그들은 대개의 경우 정서적으로 흥분되어 있다. 분노를 느꼈거나 욕구가 좌절되었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대해 질투나 적개심을 느꼈을 때 공격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한 당사자에 대해서 공격행동을 하게 된다.

분노를 느꼈거나 욕구가 좌절되었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대해 질투나 적개심을 느꼈을 때 공격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대체

로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한 당사자에 대해서 공격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아이의 공격성에 미치는 원인은 TV폭력 장면이나 가정에서의 부모들의 모습을 통하여 모방하게 된다. 공격적 행동에 의한 처벌을 받거나 혹은 그런 장면을 목격하는 것이 아이의 공격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난폭하고 화를 잘 내고, 내성적이거나 아니

아이의 행동문제는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지켜보는 어른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특히 아이들의 공격적 행동에 있어서는 지도방법을 찾아 적용시키고 새로운 환경을 안배하여 관찰하면서 아이가 분노와 좌절을 안정시키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적 투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행동이다.

면 잔인한 행동으로 공격심을 나타내는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해결방법을 취한다. 우선 아이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는 누적된 공격심을 마음껏 발산하고 또 발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음으로 아이가 자신의 내적인 공격성을 긍정적인 활동으로 유도하게끔 환경조건을 바꾸어 아이의 행동을 건전하고 바람직한 일로 유도한다.

구체적인 해결방법으로는 첫째, 분노나 좌절을 일으키는 자극을 제거한다. 예를 들면, 놀이감을 빼앗김으로써 싸움이 일어났다면 놀이감을 몇 개 더 준비해 놓음으로써 싸움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둘째, 공격행동의 결과가 보상을 받지 않도록 통제한다. 가끔 우리는 아이가 마치 교사나 부모가 자신을 벌주듯이 자기 동생을 벌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아이의 공격행동에 대해서 부모나 교사가 벌을 가하거나 화를 내면서 때리는 것은 유아의 공격성을 감소시킨다. 보다는 더욱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게 된다. 셋째,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는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머무르도록 하여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넷째, 유아가 개인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전후 30분정도씩 개인적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며

이때의 놀이 분위기는 가능한 허용적이고 자유스럽게하여 자신의 내적 에너지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적응 행동의 좋은 본모형을 보여줌으로써 지도한다.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여섯째, 공격적 행동은 어떤 기질적 장애에 기인할 수 있고 기타 여러 원인 때문에 부모나 일반 교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기관에 상담 및 의뢰하는 것이 좋다.

아이의 행동문제는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지켜보는 어른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 특히 아이들의 공격적 행동에 있어서는 지도방법을 찾아 적용시키고 새로운 환경을 안배하여 관찰하면서 아이가 분노와 좌절을 안정시키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적 투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제 아무리 부모나 교사의 태도가 훌륭하다해도 아이가 부모나 교사의 충분한 관심과 사랑,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부모-자녀간에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아이는 주어진 행동규칙을 따라야 할 아무런 동기도 찾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영민**

교사의 자기진단

수용언어에 의한 교사의 자기진단

윤 선영

질문

만일 교사가 “저 어린이는 문제아다”라고 말한다면, 다음중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안에 표시를 하시오.

-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가 있다. ()
- 한 어린이와 함께 생활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가 있다. ()
- 한 어린이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가진 교사가 있다. ()

◆ 어린이와 교사와의 관계조사표 ◆

1. 외 나와의 관계	2. 외 나	3. 외 나 그리고 수용의 언어
허용할 수 있는 행위	의 문제를 나 타내는 행위	어린이가 문제를 가 지고있다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그 아 이와 내가	예를 들어
허용할 수 없는 행위	을 하면) 나로 하여금 문제 에 부딪히게 하는 행위나 상황	문제가 없다 (예를 들어 그 아이와 내가 을 하면) 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문 제를 가지 고 있다

위의 “저 어린이는 문제아다”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오. 만일 다른 대답이 나왔다면, 왜 그럴까요?

어린이와의 관계를 해치는 12가지 전형적인 표현형태(T.Gordon)

교사 스스로 다음 12가지 언어의 전형적인 표현을 가끔 또는 자주 사용하는가에 대하여 표시해 보시오. (..... 부분은 스스로 채워보시오)

표현형태

예

- | | |
|-------------------|-----------------------------------|
| 1. 명령, 지시 | 다리를 흔들지 마라! |
| 2. 경고, 위협 | 내가 지금 책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
| 3. 훈계, 교화(도덕화) | 제일 큰형(누나)으로서 너는 해야 한다. |
| 4. 충고, 조언 | 너에게 충고하겠는데, 다른 놀이 상대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 |
| 5. 논리적인 증언, | 조금 전 그 애가 말해 주었다.
넌 지금 속이고 있지! |
| 6. 질책, 비판, 고발 | 너 또.....하는구나! |
| 7. 칭찬 | 와! 너 굉장히 잘했다. |
| 8. 꾸중, 우스개거리로 만들기 | 에게게, 그래 가지고 될 것 같니? |
| 9. 해석, 분석, 진단 |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 너 지금 잘난 척하고 있구나! |
| 10. 위로, 공감 |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아. |
| 11. 따지기, 심문 | 니네 집에서도 항상 그러니,
한번 말해봐. |
| 12. 회피, 기분풀이 | 우리 다음에 이야기하자 응? |

「12가지 전형적인 표현형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명령, 지시

이러한 표현전달은 어린이에게 그들의 기대나 관심사가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교사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것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게 된다. 그와 반대로 어른들의 힘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시키게 되어 어린이들로 하여금 격분하여 사납게 반항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어른의 의도를 어린이가 시험해 보려하는 저항감을 자극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표현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판단능력을 믿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한다.

2. 위협, 경고

이 표현전달은 어린이들의 두려움과 굴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명령과 지시에서와 유사하게 적대감과 분노를 야기시키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기대를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표현은 종종 어린이들에게 그 위협의 실효성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도록 재촉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이 말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시험하기 위해 경고 받은 행위를 해 보고자 한다는 것이다.

3. 훈계, 교화

이 표현전달은 어린이들의 예민한 감정을 불러 일으켜, 그들이 개인으로서 인정받고 이해되지 못하고, 어른들의 권위에 굴복하고 그들의 의무를 다해야 죄책감을 면치 못한다고 느끼게 한다. “너는 를 해야한다.” 또는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전달방법은 어린이들이 자신에게로의 관심을 확고하게 하고 그 위치를 방어하기 위해 저항감을 가지고 반응하게 한다. 또 어린이들에게 어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죄책감을 일깨워 줄 수 있다. → “나는 내가 해야되는 일과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나쁜 아이야”.

4. 충고, 해결책 일러주기

이러한 표현전달은 종종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판단능력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어린이들의 능력으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한다. 이 표현전달은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매이거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충고를 하는 것은 가끔 어른에게는 유력함이 어린이에게는 무력함이 강조하게 한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은 자신들을 전혀 이해하기 못한다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충고는 때로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발달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른들의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그것에만 반응하게끔 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5. 논리적 입증, 지도

어린이들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종종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무가치성과 무능함을 느끼게 하여 마치 어른의 아래에 놓인 듯한 느낌을 준다. 논리와 사실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종종

자신들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만들게 하고 불만을 갖게 한다. 어린이들은 (그리고 어른들은!) 누군가에 의해 그들의 잘못을 표명되는 것을 거의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분노하며 변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훈계(설교)를 싫어한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이미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있어서 어른이 계속적으로 지도하려 하면 화를 낸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은 종종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그냥 무시해 버리기로 결정한다.

6. 질책, 비판

어린이들이 스스로 발달한다는 견해는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위해 중요하도록 판단하여 가치를 두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한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잘못을 판단하듯이 어린이들도 스스로를 판단하는 법을 쉽게 배우게 된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자신을 부족하고, 가치 없고, 바보스럽고, 나쁘다는 느낌을 특별히 강하게 주는 표현전달 유형이다.

부정적인 비판은 반대비판을 불러일으킨다. 가치판단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그에 반한 자신들의 느낌을 자신들의 것으로만 간직하고, 어른들에게는 비밀로 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준다. 어린이들은 (그리고 어른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으로 판단되기를 싫어한다. 그들은 자기 가치감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이고 단순하게 반응한다. 종종 그들은 격노하여 그 비판이 적중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그 사람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가치판단과 비판은 어떤 어린이들에게는 자신이 충분히 좋은 아이가 아니고 어른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줄 때가 많다.

7. 칭찬

칭찬이 어린이들에게 항상 좋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반해 종종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난다. 어린이들 스스로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긍정적인 평가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칭찬이 많이 이루어지는 유아원에서 칭찬을 중단하게 되면 어린이들은 그것을 비판이라 오해하게 된다. 종종 칭찬은 -알아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조정으로 느끼게끔 한다. 어린이들은 그래서 교사가 자신을 칭찬할 때 어른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들은 그들이 특히 친구 앞에서 칭찬을 받을 때 종종 당황해 하거나 불쾌해 한다. 칭찬을 너무 많이 받는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칭찬에 스스로 종속되거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어른에게 요구하게 될 수 있다.

8. 꾸중, 우스개거리로 만들기, 부끄럽게 하기

이러한 표현전달은 어린이의 자기가치감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어린이들이 나쁘고, 가치가 없고, 사랑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한다. 그러한 표현전달에 대해 가장 자주 나타나는 어린이의 반응은 어른에게 똑 같은 방법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어른들이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어린이에게 변화를 주려 한다면, 어린이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법에서는 어린이의 현실적인 자기관찰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그들이 들은 대로 똑같이 되돌려 줄뿐이다.

9. 해석, 분석, 진단

이러한 표현전달은 어른들이 어린이들이 왜, 어떻게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모두 "통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러한 "심리분석"은 어린이들에게 위협이 되거나 좌절감을 주게 될 수 있다. 어른이 만일 그 가운데 우연히 '숨겨진 사실'을 맞게 되면, 어린이들은 당황하여 자신들이 모두 알몸으로 드러났음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빛나갔다면' 어린이들은 정당하지 않은 추궁에 화를 내게 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자주 분석하는 어른들은 그들이 어린이들 보다 우위에 있고, 현명하며,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된다. "나는 왜 그러는지 안다." "나는 너를 원히 알고 있다"라는 전달은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라버리게 되고, '어른들은 너희들(어린이들)의 문제와 관계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된다.

10. 위로, 공감, 안정시키다

이러한 표현전달은 종종 어른들이 믿고 있는 만큼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많다. 만일 불안해하는 한 어린이가 어른에 의해 진정하게 된다면, 그 어린이는 그가 불안하게 느끼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것을 어른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게 된다. 어른들이 진정시키는 것과 위로하려는 시도를 어린이들은 그들의 체험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위로한다면 어른 스스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위로하는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한 어린이가 크게 소리내어 울어 관심을 끌거나 또는 낙담해 하는 모습을 어른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11. 따지기, 심문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세세한 질문을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불신이라 생각한다. 어린이들은 그러한 질문으로부터 위협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데, 특히 도대체 어른들이 왜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왜 그래요?(왜 알고요 그래요?)", "왜 내가 말해야 돼요?"하는 반대질문으로 반응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어른들이 통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저항을 하려한다.

12. 회피, 기분풀이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은 모두 타인으로부터 주의와 존중으로 이해 받고 싶어한다. 만일 어른이 회피나 기분에 의한 기교로서 어린이들의 현재의 경험을 오해하거나 슬쩍 옆으로 돌려버리게 되면, 인과응보로 어린이들은 이 어른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감정을 전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들은 어른이 한 것처럼 그들의 감정을 그냥 옆으로 돌려버리거나(가벼이 여기거나), 또는 마음놓고 지낼 다른 누군가를 찾게 된다. 이러한 표현전달은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이 그들에게 관심이 적고, 그들의 감정을 나누려고 하지도 않으며, 어린이들이 현재의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억지로 바뀌어야 한다는 인상을 주게 될 수 있다. 계속

신년연하장

지탁연에 온 새해 연하장 모음

편집부

남미영 회장님,

여섯 번째로 다 읽어보고 싶은 새해 복을 전해드립니다.
 매년 연하장 다 읽고 나서 연하장도 못 보고 연하장 연하장으로 다 읽어보고 싶어요...
 본인이 구하러 오셨는데도 다 읽어보고 싶어요.
 연하장 보면 다 마음에 들어요. 저 역시 읽는 게 좋아서 읽어보고 싶어요. 또 다른 연하장도 많아요.
 그래서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저 스스로도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연하장도 많아요.

이미정 드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늘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회장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엔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라며 건강하십시오. 지탁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마산 토톤이 드림

지택연 어머님께

제대로 소식도 전해 드리지 못하고
한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바쁜 나날로
꽤 채워진 것이 아니었나,
어쉴뿐 핑계도 찾아봅니다.

저는 다음 달이면 한국에 돌아가
고, 그리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18일

장미경

희장님!

앞날은 참으로 베풀었지요.

97년 한해도 지택연의 분조인 유작업을 기다립니다.

유작업을 모든 열매 다 이루어주시길

사명을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개인과 연합회의 발전을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996. 12

서울시민간.가정보육시설연장

박 정 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손터한 젊은 어머니만 하여 말 많은 열매 놓여 있는 면목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택연 식구 모두 다 큰 임나서고, 97년도 당당하게 열매서기 바랍니다.

열매 오사격에서 작은 축복을 얻어준다고 해요.

반겨온 지택연 식구들과는 세월에 따라 만나도록 하세요.

엄게 여자는 못여지만 「안나정」을 엄게 바랍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변미양, 김광민

한해동안 어린이개발센터에 관심과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보탁드리고요 다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 올림

새도(새터)어린이집의 어머님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너무나 고맙습니다.

한글로 안녕하고 헤어질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한글로 편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만 공부를 못 배워서 제 힘으로는 쓰지 못합니다.

이 편지는 주방에 계시는 민항숙씨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씩 열심히 한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시마즈 토모요 드림

국회의원 이회창(신한국당 고문), 권영재(신한국당 여성위원장), 박철언(자민련), 신낙
균(국민회의 부총재), 추미애(국민회의), 한영애(국민회의), 양경자(신한국당), 김영선(신
한국당), 최형우(신한국당)님과 국회의원 지도위원 김희선님, 정무장관(제2)김윤덕님이
연하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여성단체와 사회단체에서도 격려와 권고를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서울진보청년회, 한국여성연구회, 한국교회여성연합
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성폭력에방치센터, 숭실대 사회봉사관, 경남여성
회, 부산여성회,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대구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
병원노동조합연맹,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경실련 시민의 신문, 동
덕여대 여성연구소, 전국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
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 전화, 서울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의 전
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참관기

보육사업의 공공성확보를 위한 97년 시설장 연수 및 제3차 정기총회를 다녀와서

위 양자(본회 부회장)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주최로 1997년 1월24일 25일에 걸쳐 대전 유성 아드리아 호텔에서 열렸다.

‘올바른 운영과 책임으로 보육사업의 주체로 서자’는 한숙희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신낙균(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새정치 국민회의 부총재)의원의 ‘보육사업 내실화를 위해 노력합시다’라는 축사를 들으며 일정을 시작하다.

조남권(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행정 사무관)의 영유아보육정책 강연에서는 그간의 보육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개괄로 시작하여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다.

앞으로의 보육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1. 보육시설의 확충에 대해

- 1) 경제성 있는 보육시설 용지 확보조치 미흡 및 대책,
- 2) 세제지원 등에 있어서 유치원과의 형평성 유지,
- 3)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차등화 추진이라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다.

2. 보육시설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 1)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97년도에는 방과후 보육프로그램과 안전보육프로그램을 개발 추진 중이며,
- 2) 보육사업 지원체계의 강화를 위해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에 관한 조사·연구·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교구 개발 보급·보육정보지 발간 등 추진과 부설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관련학회 및 단체로 하여금 전문연구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97년까지는 6대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등)에 정보운영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 3) 우수보육교사 확보 및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시설장 보육교사의 교육강화, 보수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96년 말 현직 유치원교사의 70%수준을 공립유치원교사의 보수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97년부터 장애아전담 보육교사에게는 월5만원의 수당을 새로이 지급할 전망이다,
- 4) 전담 부서 및 전담 인력의 확보를 위해 중앙에 과(보육과)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지방행정관에는 계단위의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 늘어나는 보육사업 수요에 적절히 대처토록 하겠으며,

- 5) 보육시설 지원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소재지와 대상 영유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우선 농어촌과 도시지역으로 나누어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는 '97년도에 개소당 월12만원의 차량운영비와 농어촌지역의 취사부 1인의 인건비, 보육료 감면 저소득층자녀의 시설자부담분(20%)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하도록 계획하다.

3.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최대한 전력해 나갈 계획이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다.

‘한국의 사회복지와 영유아보육사업의 전망’ ‘공익사업’으로서의 아동보육과 민간보육시설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교수는

1.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에서 한국사회복지의 요점을 알겠는데 어떤 국가가 공급하고 나머지는 사회적 책임이 부담하는 것으로 모델로 규정할 수 있으며,
2. 한국사회복지의 특성과 최근변화에서는 한국사회복지의 특성을 국가의 행정 관련만 부담하는 국가책임주의 복지정책, 영유아보육에서 “아동보육에 대한 책임부담을 누가 한다”고 공공연히 전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부담 분담의 복지정책, 내용성이 결여된 영식 요보호 복지정책, 사회적 책임 분담의 복지정책, 대안서비스가 제공되어 자립능력과 자립근거에 대해 중요하며 사회복지의 급이 되고 소수의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통제되고 자립의 대안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최근 소위 ‘한국형 복지모형’의 전파라고
- 1) 복지는 경제성장을 가져다주는 법이 아니라 경제를 이끌어 준다.
- 2) 복지의 책임은 국가뿐 아니라 기업, 가족, 종교, 지역사회 등이 부담하는 복지의원칙으로
- 3) 전통적 가족보호라는 한국적 특성 반영 등의 글자로 정명하고 있어 국가사회복지가 어떠한 상태에서 복지 대안으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회복지의 사회적 책임, 지역별 불균형성을 불균형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최근 변화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였다.

그간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이 민간위주 보육시설의 양적 확대에 치우쳐 공공부문의 보육서비스를 늘리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이나 장애아·영아전담보육은 국공립보육시설이 적합하다고 보았으며, 보육조례제정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변화를 가능토록 하는 노력을 구체화시켜야 함을 강조하다.

4. 아동보육과 ‘민간보육시설’의 역할에서는

공익사업으로서의 아동보육은 우리사회의 영역을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의 임무로 보육자체는 이미 공익적(사회복지적)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아동보육의 공익적 성격에 기인하여 민간보육시설 운영자는 비록 자기 재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민보련’이 국공립시설과 마찬가지로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시설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여론화시키며, 그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아동보육의 공익적 성격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하여 영리사업이 아닌 공익사업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다음날 제3차 총회에서는 보육사업의 공공성확보와 민간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97년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정관개정을 하다. **지역인**

수련회 · 총회 보고

97년도 지탁연 겨울수련회 및 제12회 총회 보고

편집부 엮음

1년만에 전체 지탁연 식구가 만나는 자리!

1997년 새해 벽두! 늘 그랬듯이 신정연후 직후 서울 하늘아래 전국의 지탁연 식구들은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짧은 방학을 이용해 송실대 사회봉사관에 모인 교사들은 1년만에 모두 모이는 자리라 그런지 서로간의 안부를 묻는 등 반가운 모습 속에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수련회는 정기총회를 겸해 이루어졌는데, 작년 총회 때 결의한 교사조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내용을 모으는 일에 중점을 두었고, 중앙과 지역의 1년간의 기나긴 고민을 모아 올 8월에 임시총회를 통해 한국보육교사회를 띄우기로 하면서 그 준비단계로 한국보육교사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전회원의 합의 속에 통과되었다.

이번 정기총회는 감동 그 자체로, 우리 지탁연의 취약한 재정이 올해도 반복되면서 이 적자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회원 스스로가 우리의 지탁연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자 하여 박봉을 털어 특별헌금을 내겠다는 높은 결의를 보여주어 우리의 조직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특이할만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우수교사, 우수소모임, 우수지역상 수상이 있었는데 우수교사로는 김숙자·김연숙·조선경·신서영·이난희 선생님이 수상하였고, 우수 소모임 상은 올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한 인천의 풍물소모임에게 돌아갔다. 우수 지역상은 보육교사회를 띄우며 구별 모임까지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산보육교사회가 수상하였으며 그동안 우리네 방앗간에서 수고하신 최선희재정국장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3일간의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은 '지역보육운동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 심성구(서울지역운동연합 의장)의장님의 강연과 '교사조직전망에 관한 발제'를 위양자부회장님의 발제, 이어 1년 동안 지탁연의 사업전망과 관련해 지역 상황에 맞게 열심히 활동해온 '지역조직사례 발표'가 있었다.



둘째날은 봉천동 애기방 박인해선생님과 아이들이 나와 '어린이 요가'를 실감나게 선보였고 제12회 정기총회가 있었고, 유아교육유형소개에서 조선경 교육연구부원의 '레지오에밀리아 접근법'과 정희연 한국보육정보연구소장의 '하이스코프'에 대한 강의는 외국의 교육이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나라 현실 · 우리 현실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자리였다.

몇 년만에 재계한 또래모임에 이어 교사의 발표시간에는 안산의 인형극과 중앙 그림책소모임의 '옛이야기 들려주기'를 하였는데 교사가 직접 참여한 자리인 만큼 호응도 또한 매우 높았다.

오랫만에 우리 앞에 선 대전의 이정님 선생님의 사회로 시작된 공동체놀이는 이정님 선생님 특유의 말투와 몸짓으로도 충분히 웃음이 만발하였고 때리고 구르고 지르며 그동안 쌓였던 몸과 마음의 피로를 씻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방별 뒷풀이는 어느해 보다도 진지하고 열기로 가득했다.

마지막날은 전날의 주님과 함께 보냈던 긴 시간으로 인해 교사들이 거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강사선생님이 교사들을 기다리는 해프닝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과학교육시간엔 줄음이 가실 정도의 열정적인 김옥자선생님의 강의로 모두 빠져들었다.

폐회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감하며 10년 동안 우리의 든든한 뼑이었던 지탁연 시절을 마감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롭게 탄생되는 한국보육교사회를 멋들어지게 만들어 이 땅의 보육교사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노라는 결의를 하며 우리의 아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모두가 하나가 되었던, 조직이 뒤흔들려...

우리에게 이리 큰 힘을 주는지. 우리는 함께 있기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다짐하며... **지역**

세월글 소개

'97 지탁연의 세월꾼을 소개합니다

편 집 부 위 음

편집부에서는 이번 제12회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각 지역의 대표자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갖기로 하고 약간의 호구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질문사항은 이렇습니다.

성 명 (소속시설)

1. 나와 함께 사는 가족
2. 보육사업경력
3. 선생님의 아동관을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4. 지역대표로서 97년도 지역사업의 포부는?
5.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하고 싶은 일은?
6. 동료들이 말하는 이 사람은?

여제 오려와 함께 지탁연의 큰 살림을 꾸려갈 세월꾼들을 만나봅시다.

◇ 봉 천

이 경녀(씩씩이어린이집)

1. 28세, 가족은 부모님과 4명의 동생이 있으나 현재 봉천지역선생님들과 함께 폐거지로 살고 있다.
2. 92년도부터 시작(만 6년)
3. 어디서나 언제든지 담당할 수 있는 아이
4. 작년 한해 봉탁이 호트러졌는데 다시 단단하게 하고, 다른 어린이집과 함께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양적 확대를 이루는 것.
5. 연하의 남자와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6. 매사에 화끈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확실한 사람. 일을 하는데 추진력이 있고 무뚝뚝한 반면 사람을 동료로 생각하는 씩씩이가 있다.

◇ 남 부

김 진숙(새터어린이집)

1. 28세, 부모님과 할머니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2. 93년부터 시작(만 3년)
3. 아이는 작은 인간이다.
4. 남부보육교사회 회원들이 교사회에 애정은 갖고 있지만 일은 잘 안되고 있는 현실 속에 97년 연말이 되면 모두가 긍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5. 제주도 여행-꼭 한번 가보고 싶다.
6. 평소에는 조용하고 말이 없는 듯 한데 상황에 따라 해야할 말은 조리 있게 딱 부러지게 한다. 생글생글 잘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

◇ 안 산

김 실이(진달래동산어린이집)

1. 29세, 대학원에 입학한 남편과 6개월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
2. 91년 11월부터 시작(만 5년)
3. 아이들은 각자의 개성이 있고 모두가 존중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다할 수 있다.
4. 안산지역교사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이다. 소모임과 알고 지내는 교사들 중심으로 모임을 확산해 나가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사조직을 튼튼히 만들고자 한다.
5. 1년 마감하고 나서 '올해 열심히 일했다'라고 평가하고 싶다.
- 6.

◇ 수 원

이 주영(용기종기어린이집)

1. 29세, 신혼3개월의 단꿈에 젖어있다.
2. 92년 3월부터 시작(만 4년)
3. 자유로운 사고와 창조적인 행동을 하는 어린이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는 어린이
4. 용기종기와 지역간의 고리를 확실히 만들어 놓는 일과 수원지역에 교사조직의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
5. 애 낳기 전까지 미시로서 지역대표를 잘 해내고 싶다.
6. 잔재주가 많아서 쓸모가(?) 많은 동료임. 넉넉함이 넘쳐 너무나 여유를 부릴 때도 있으나 자기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재목 감이다.

◇ 인 천

문 유미(예술어린이집)

1. 30이기를 거부하는 30세, 부모님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2. 90년부터 시작(만5년, 중간 1년은 유치원 근무)
3. 아이는 창조적인 예술인이다.
4. 지역 속에 뿌리내리는 보육교사회를 꼭 건설하겠다.
5. 여행을 많이 하고 싶다. 시간이 없겠지만 넓은 곳에 가서 생각도 넓게!
6. 모든 일에 있어 확실하고 화끈하다.
그리고 분명한 사람이다.

◇ 대 전

이 난희(샘글놀이방)

1. 28세, 혼자서 살고 있다.
2. 92년부터 시작(만 5년)
3. 아이는 아이답게 키워야 한다.
4. 안정이 되었으면 한다. 교사, 재정등등.
5. 향후 샘글의 방향을 진단하고 전망을 내오는 일.
6. 우선 성격이 활발해서 좋고, 그 외에도 좋은 점은 너무 많죠!
신념과 집념이 강한 사람.

◇ 부 산

김 향진(꽃들나라어린이집)

1. 30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2. 91년 10월부터 시작(만 7년째)
3. 아이는 선천적으로 착하다.
4. 현재 구모임을 하고 있는 동래구와 친구 모임을 강화하는 등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것과 간부들의 역량을 키우는 일에 주력하겠다.
또한 교사회 사업을 대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5. 어린이집이 넓은 곳으로 이사할 예정인데 별탈이 없었으면...
정말이지 부닥위가 올해 잘되었으면...
6. 매사에 추진력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조직관이 분명하고 품성이 좋다. 사람을 지켜보고, 기다릴 줄 알고, 키우줄도 아는 사람이다.

◇ 광 주

박 화명(도담도담어린이집)

1. 27세, 부모님과 동생과 살고 있다.
2. 93년부터 시작(만4년)
3. 아이는 인간이다.
4. 회원들 간에 친목을 다지는 것과 교사조직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
5. 건강한 몸과 마음.
독립운동을 전개하리라(집에서의 독립을)
6. 발렌타인데이에 장미꽃 100송이를 받을 정도로 남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진지할 때는 진지하고 분위기를 잘 파악할 줄 안다. 따뜻하고 동료를 잘 챙겨 준다.
흠이라면 씻기를 너무 싫어해 별명이 개구쟁이 해리이다.

◇ 마 산

주 연옥(튼튼이어린이집)

1. 34세, 어린이집에서 교사들과 살고 있다.
2. 95년 8월부터 시작(만 1년 6개월)
3. 더불어 사는 참 좋은 공동체 건설을 위해 생활 속에서 부터 사랑을 실천해야겠지요?
4. 교사회로 전환하는 지택연의 사업에 발 맞추어 한 걸음씩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5. 건강했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찾아서 시집도 가면 효도했다는(?) 소리도 들겠지요
6.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매사에 빈틈이 없으나 교사와 아이들에게 너무나 편안하게 대해주신다. 재학인

현장소식 ▶ 하나

자연에서 배우는 아이들

-겨울캠프를 다녀와서-

최 은정 (금암 어린이집 교사)

어릴 적 비닐 한 장 손에 달랑 쥐고서 두 두룩하게 언덕진 곳에 올라가 신나게 피성을 지르며 썰매를 타 본 기억이 있으신지요. 97년 새해 금암어린이집 친구들은 소릿소릿 솟아나는 꿈을 가지고 겨울캠프를 떠났습니다. 춥다고 마냥 움츠러드는 몸과 마음을 모처럼 활짝 열고 다녀왔습니다. 도심 속에서 마셨던 탁한 공기와는 달리, 산의 기운이 담긴 달고 맛있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데,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무주'라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올망졸망하면서도 아주 신나게 놀다가 왔습니다. 눈썰매에 흥이 붙은 우리 아이들은 겨울캠프 떠나기 몇 일 전부터 잔뜩 기대 속에서 지냈습니다. 손 보다 더 큰 두툽한 장갑과 눈만 내보이는 긴 모자를 깊이 쓰고서 매운 산바람과 채 녹지 않은 눈이 쌓여 있는 무주에 내렸습니다. 숙소에 들어가 짐 정리를 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잠시도 앉아 있을 새가 없었습니다. 1박 2일의 길고도 짧은 여정 속에 프로그램은 다양했습니다. 첫날은 주라기 공원을 견학하고 눈사람 조각전과

레이저쇼를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의 눈은 공통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기차를 타고서 정말 공통이 사는 시대에 들어간 것처럼 공통 옆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4세 영필이는 무섭다고 내내 울었습니다. 견학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한 후, 시간이 허락치 않아 눈사람 조각전과 레이저쇼는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캠프파이어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바룩바룩 웃었습니다. 그 살아 있는 표정 하나하나를 사진기로 잡아내지 못한 게 무척 아쉽습니다. 시려운 손을 호호 불어가며 온갖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춤을 추던 개구쟁이들. 불꽃놀이가 시작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까만 밤하늘을 바라보던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첫날의 일정은 그렇게 끝이 나고 둘째날이 되었습니다. 6,7세반은 어느 새 아침운동까지 하고 와서 찬 기운으로 동생들을 깨웠습니다. 아침식사 후에 드디어 가슴 떨리는 눈썰매장으로 출발! 썰매장까지 가는 동안 차안에서는 무장 또 무장. 목도리로 칭칭 감은 얼굴과 목, 스스로도 가누지 못할 만큼 두껍게 입은 옷. 아이들은 무척이나 신이 나서 눈썰

매를 끌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릴 적 우리가 놀던 그 눈 언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매끈하게 닦여진 눈썰매장을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아저씨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의 표정은 기다란 물코가 들쭉날쭉 하는데도 신나 있었습니다. 아저씨들은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앉아 있으면 호루라기를 절대 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다칠까봐서..... 금암친구들은 즐빔이 앉아서 아저씨의 호루라기 소리만을 기다렸습니다. 눈썰매를 2-3시간 타고서 숙소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긴 낮잠을 자며 돌아 왔습니다. 눈썰매가 무섭다며 한쪽에서 일어 있는 눈을 모아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눈썰매를 한 번 타고서는 잉잉 울고 내려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겨울캠프가 여름캠프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인내와 극기를 통해 강인함이 길러진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

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름캠프 프로그램에도 극기훈련 및 아이들의 힘과 자신감을 길러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겨울캠프는 피부로 직접 느껴지는 차가운 날씨와 싸워야 하는 자생적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연을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교육이념으로 일본 북해도에서는 추운 겨울에도 아이들에게 짧은치마나 바지를 입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자연과 동화되기를 원하는 민족입니다. 과잉보호 속에 키워지는 우리 아이들은 점차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지혜를 배웠던 우리 민족의 정서가 이제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눈썰매를 타며 울었던 아이들, 출다면서 집에 가자고 칭얼대던 아이들, 장갑을 벗어 던지고 내내 눈썰매를 탔던 아이들, 콧물을 후루룩 들이마시던 아이들, 이 아이들이 겨울캠프를 통해서 인내와 강인함 그리고 자연에서 배운 지혜를 가득 안고 살아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계명

현장소식 ▶ 둘

함께 어우러지는 송년잔치를 마치고

한 혜정 (부산 아기자람터 교사)

연말이 찾아오면 보통 어느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재롱잔치.

어른들에게 보이기 위한 발표회 형식이라는 재롱잔치의 한계를 극복키 위해 아기람

터에서는 한 해를 보내며 이 기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하는 시간도 가지고 결속력을 높이며 어른과 아이들이 모두 즐거울 수 있는, 보는 잔치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송년회)를 연말이 되면 해마다(6년째) 해오고 있다.

12월초 마당 한쪽에 있는 석류나무에 교사들이 생생 부는 바람에 손이 팽팡 얼도록 예쁘게 장식하고 꼬마 전구를 가져와 걸고 불을 켜자 아이들의 '와'하는 환호



소리와 빨강, 파랑, 초록으로 깜박이는 환상적인 조명을 첫발로 송년회 준비는 시작되었다.

교사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자모회를 통해 수정보완 하기도 하고 자모들이 잘하는 음식이나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정해서 본격적인 준비단계로 들어갔다.

아이들의 장기자랑은 평소에 해 왔던 내용들을 잡아서 특별한 연습시간 없이 분반 시간이나 대그룹 활동 시간에 연습을 했고 평소 운동이 부족한 엄마들을 위해 자모장기 자랑은 마카레나춤으로 결정을 하고 교사 한 명이 책임지고 엄마들과 연습해 보기로 했지만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시간을 이용해야 하기에 바쁘기도 하고 쑥스러운지 음악을 틀어 놓고 '잠깐이면 되요'라는 교사의 말에 '저는 못해요' 하곤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가버려서 몇 명의 자모 말고는 연습

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더 열심히 하면서 "엄마, 내가 가르쳐 줄게" "집에 가서 내가 가르쳐 줄게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야"한다.

12월 20일 드디어 송년회의 날이 밝았다.

그전부터 환경 꾸미라 정신이 없었지만 오늘은 분반하랴, 무대 꾸미라, 손님 치를 집이 다 그렇겠지만 집 안팎을 치우고 청소하고 단장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빴다. 저녁이 되어 엄마들은 장만한 음식들을 자람터로 옮겨오고 식사준비 하느라 분주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잠시를 가만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 다니며 신명을 발산하고 있었다.

속속 부모들과 고모, 이모, 할머니들이 오셨고 다른 곳에 계시는 교사들과 옛날에 아기자람터에서 근무하셨던 선생님까지 참석해 주셨다.

현관에 신발이 수북히 쌓이고 집안엔 사람들이 북적대는 것이 정말 잔칫집이다.

1부는 신나는 저녁시간-음식을 한 곳에 차려 놓고 그곳에 덜어 먹는 뷔페식.(반응이 좋아 아기자람터에서 3년째 계속하고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식사하세요'라는 말이 떨어지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접시를 들고 줄을 서서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들을 보면서 여느

호텔 뷔페가 남부럽지 않았다.

가족들이 온 아이들은 물론이고 가족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아이들도 내아이, 네아이를 가리지 않고 쟁겨서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얘기꽃을 피우는 분위기가 너무 정겨웠다.

즐거운 식사시간이 끝나고 올해 졸업하는 찬희엄마의 낭랑한 목소리로 구연동화를 들으며 2부를 시작했다.

아이들의 장기자랑은 큰 반인 연꽃반, 돌고래반 부터 올동을 했다. 다들 연습 때와 사뭇 다르게 진지해 하며 열심히 한다. 특히, 6살 성규의 혼들혼들 엉덩이로 많은 사람들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5세 솔방울반은 동시를 손유희와 함께 했는데 머리에 쓴 가면만큼이나 감적인 무대였다. 마지막으로 영아들이 있는 딸기반의 율동이었는데 연습할 때 따라 흔들던 아이들이 무대에 세워놓으니 나 잡수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러다 교사의 독무대가 되겠다 싶어 겨우 아이들을 붙잡고 하는데 큰 아이들이 나와 함께 해주어 쉼없는 독무대를 막을 수 있었다.

이번엔 자모들의 무대였는데 연습을 한 엄마들은 몇 분 되지 않지만 모두 나가야 된단까 겁없이 다 일어나서 나가 마카레나 춤이 시작되었다. 연습하자며 교사가 녹음기를 들고 이방 저방을 흔들고 다녀도 '아이고, 못하겠네' '이거, 우째하노' 하던 엄마들이 무대에 서니 딴 사람이 되어서 한바탕 신명을 냈다.(이거, 왕 내숭이잖아)

다음은 자모의 강력한 권유(?)에 힘입은 교사들의 순서.

수화로 노래부르기인데 제목은 사랑으로, 사실 시간이 넉넉치 않아 전날 수화를 배워서 하루 동안 연습을 해서 선보였는데 분위기가 진지해지며 전반적인 호응이 좋아 함께 배워 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습때 아이들



과 함께 해보니 진지하고 반응도 좋고 필요성이 느껴져 이후에 아이들에게 1주일에 하나 정도라도 수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교사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2부를 끝내고 바쁜 분들과 집이 먼 가족들은 먼저 가고 남아 있는 자모자부들의 공동체놀이를 간단하게 하고 뒷풀이로 들어갔다. 뒷풀이에서는 부모와 교사들이 다 모여 박스 속에서 이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던 맥주를 꺼내 한잔씩 돌려가며 인사도 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또 걱정거리들을 얘기하기도 했다. 부모들의 소감은 전체적으로 참석률이 좋았고 가족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또 아기자람터에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달라는 자부의 든든한 후원의 변도 들을 수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서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청소와 뒷정리를 한 뒤 96년 송년회의 막을 내렸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치르고 교사회의 속에서 나온 평가들은 좁은 공간에서 행사진행을 했기 때문에 진행과정이 힘들었던 것 같고 다른 곳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친지와 온 가족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여서

좋았고,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았다는 것이었고 내년엔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더 알차게 하자는 결의들을 내어 왔다. 이제 한해가 가고 새해가 밝아 왔으니 자람터와 우리아이들에게도 한해 동안 송년회의 풍성함을 빌어 본다. **[색연]**

현장소식 ▶

‘함께 크는 아이들의 큰잔치’

오 연환 (남부, 다우리어린이집)

다우리어린이집이 문을 연지 3년이 되어 연말마다 진행해 오던 아이들의 재롱잔치도 3회를 맞았습니다. 이번 재롱잔치는 어린이집 내부에서 우리만이 하는,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부모님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하는 하지 말자는 데 교사들이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된 데는 몇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동안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재정문제가 서울시의 영아반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해결이 되어 그동안 마음써준 모든 분들과 같이하는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지역 내에서 노동운동을 해 오신 분들과 다우리

노동자회관과 어린이집교사들 31명은 지역주민사업을 벌일(가칭)지역센터추진위를 센터사업의 일환이 되기 위해 추진위원 전체가 해야한다는 취지였고, 세번째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식의 재롱잔치가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서로를 위해 준비하고 보여주는 재롱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잘 짜여진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어른들의 풍성하고 열려진 인간적 관계가 더 중요

한 교육내용임을 강조하고 부모님들께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 11월 말부터 자부대표 2명, 자모대표 2명, 자활대표 1명, 교사 3명으로 준비모임을 꾸려 매주 1회씩 4차례의 만남을 가지면서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모회의는 거의 어머니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만남이 소원했던 아버님들이 준비모임에 나올 자부대표를 뽑기 위해 자부회의까지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어린이집이 비좁기도 하고 지역내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에 근처에 있는 구로신협을 빌렸는데 풍물패 '정소리'의 풍물에 맞춰 아이들과 자활, 교사들이 구로신협에 도착하면서 시작된 행사는 송태복신협이사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아이들의 재롱이 펼쳐졌습니다.

옹알이들의 울음바다 속의 공연에 이어 재잘이1반 아이들의 어수선한 꼭두각시춤이 끝나고 재잘이2반의 시낭송과 노래, 소고춤을 끝으로 재롱둥이들의 재롱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어머님들의 전래동요메들리에 이어 '좋은 엄마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P.E.T 교육에 대한 짧은 상황극을 보여줌으로서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을 주었는데 좋은 엄마가 되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들은 자신이 자녀가 되어 머리에는 동물띠를 두르고 커다랗게 자녀 이름을 쓴 목걸이를 걸고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모습

행사일정은 96. 12. 21.(토) 오후 3:00-7:00

내용으로는

- ♣ 어머님들 재롱 - 8살이전(6-18개월)의 연서
재잘이1반(19-27개월)의 꼭두각시춤
재잘이2반(28-36개월)의 도토리씨농성, 그대소녀 노래, 소고춤
- ♣ 아버지들 재롱 - '아이가 되어보았어요'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연구으로 꾸민다
어머의 역할을 아버지들이 대역
- ♣ 어머님들 재롱 - 전래동요 메들리
- ♣ '좋은 엄마가 되려는 사람들 모임' - 긍정적 대화법과 부정적 대화법에 따른 상황극
(다육이와 줄임말, 연서, 자의 분담, 부모역할 훈련강화를 둔 그 외의 모임)
- ♣ 자원봉사자 - '백악동' 울릉도 전락(부모님에 어머들이 주는 선물)
- ♣ 어머들 작품, 사진전, 그림전
- ♣ 스피 - 동극 '술'로온 고돌이(지역내 25세와 스피로온으로 30여명의 모임을 있음)
- ♣ 정소리(풍물패) - 결단
- ♣ 어린이집에서와 어머들 생활 비디오 상영
- ♣ 메들리 - 음식준비한 그동안 먹었던 것들 먹대어 분담.

을 꾸며보았는데 아이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소띠'친구들이 동극 속의 호랑이에 아이들이 한참을 빠져 웃고 떠들었고, 자원봉사자의 울동과 교사소개로 1부 순서가 끝나고 2부는 자모들이 준비한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썬타의 선물을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간단하게 뒷풀이를 끝으로 오후 3시부터 총3시간에 걸친 행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총 150여명이 되는 분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사를 치루고나서 아빠들의 모임인 자부모임이 정식으로 발족되어 1달에 한번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큰 규모가 아니 작은 행사였지만 그동안 어린이집과 관계해 온 모든 분들이 참여한 그야말로 잔치마당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지역사회와 같이할 수 있는 '함께 크는 아이들의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독거노인이나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과도 해볼 계획입니다. **[색연]**



현장소식 ▶

애들아! 심심하지? 인형극 보러가자! -인형극 공연을 마치고-

서현경 (안산지역 진달래 동산 교사)

"어! 떨지 마세요. 다쳐요!"
"줄 좀 서세요", "다 볼 수 있어요"
"들어보내 주세요"

Big Bang(대폭발)이었다.

안산시 원곡동 군자 새마을 금고 앞에서 무려 1000여명의 아이들이 몰려드는 큰 사건이 벌어졌다.

'1996년 1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진달래동산 주최 인형극 공연'을 보기 위해 온 어린이 손님이다.

우리 어린이집이 위치한 이곳은 안산에서 저소득층이 가장 밀집해 있는 구시가지로 다세대 주택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반월공단의 길목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라 유해상가들이 많은 곳이다. 즉, 주거환경

이 열악할 뿐 아니라 특히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많이 소외되고 그 욕구가 상당히 결핍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육하는 아이들 뿐 아니라, 우리지역의 많은 아이들을 위한 건강한 어린이 문화 형성과 발전을 위한 책임과 필요성을 느껴왔고 그것이 오늘의 인형극으로 외화 되었다.

우리는 준비과정에서 그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역자원 -사람, 단체,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과 함께, 이 계기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초를 마련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진행해 나갔다. 2년 전부터 진달래동산 망년회때 합



계 인형극 공연을 해오던 한양대 경상대 동아리인 '아해사람'에서 이은하 선생님과 함께 인형극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계획수립과 동시에 지역후원을 모으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고 다행스럽게도 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호응과 격려를 해주셨고 특히 안산시 가정복지과에서 사업보조금까지 받게 되어, 그냥 동네 잔치처럼 조출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본의 아니게 너무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게 되어, 한편으로 당황스럽기까지 했다.

또한 포스터와 초대 카드를 이용해 각 어린이집에, 동네 곳곳에, 지역신문에 심지어 우리 교사들이 원곡국민학교로 바깥놀이 나가는 날이면 Men-to-Men 작전으로 직접 홍보에 나서는 등 그야말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원곡국민학교 선생님들까지 교실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인형극 공연을 알려주셨다니, 선생님들과 교장, 교감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하나 재미있는 일은 우리가 동네 곳곳에

포스터로 도배를 하자 이틀만에 다 떼어져서, 또다시 곳곳에 포스터를 붙였다. 그러자 원곡1동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오기를 "자꾸만 허가없이 붙이면 한 장당 500원씩 과태료를 붙이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극성 때문인지 드디어 D-day! 12:00시부터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人山人海를 이루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원곡동 사거리 길게 늘어설 줄.....

그야말로 즐거운 사건이 터진 것이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관객들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벽간 감동과 그간의 '힘들고 노력이 그야말로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동료교사들과 맞잡은 두 손에서 뜨거운 사랑과 뿌듯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물놀이패를 필두로 하여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우리 아이들과 뒤따라오는 자모, 자부, 길놀이꾼들이 군중을 헤치고 입장했고, 곧 사물놀이 공연, 시장님 인사, 인형극, 1, 2, 3 순으로 진행해 나갔다.

이미 공연장에 300여명이 꽉꽉 찼지만 밖에는 아직도 수백 명이 입장시켜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었다.

우리는 즉석에서 2회 공연을 하기로 하고, 대기표를 주며 나중에 오라고 했지만 아이들은(부모들도) 자리를 뜰 줄 모르고 '숫자 적힌 대기표를 꼭 권 채' 저녁 5시까지 기다렸다.

이 '아우성' 때문에 군자 새마을 금고 직원들까지 나와 줄을 세우고 이 대기표를 나누어주면서 '이것 때문에 퇴근도 못한다'



고 농을 걸기도 했다. 특히 상무님은 내일 또 장소를 빌려줄 테니 한 번 더 하라고 심각하게 제안하셔서 그저 웃기만 했다.

공연의 시작부터 끝까지 잘 진행되었고 연습 때는 너무 못해서 걱정했던 '흑부리 영감'은 어쩔 그리도 잘하는지 '멋진 자활 이모, 삼촌들' 특히 압권은 단연 우리 진달래 동산 친구들의 국악동요 메들리!-지택연의 국악교육의 결실이 아닌가 싶다.

아! 이렇게 공연은 끝났다. 대성공! 우리 모두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하루의 무용담을 말하기에 바빴다.

이 공연은 그간 우리활동에 대한 총체적 결과이며, 우리조직이 명실공히 멋지고 역량 있는 조직임을 증명해 주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96년 한해 동안 조

금은 침체되었던 우리의 활동에 기폭제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이 과정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하는 법인사업의 기초가 될과 동시에 우리사업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이 작지만 큰 공연은 우리에게 많은 힘과 가능성을 주었다. 이 공연을 위해 애쓴 우리 교사들, 한양대 자원활동가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대기표를 꼭 쥐고는 줄을 서 있던 긴장된 아이들의 얼굴에서 공연 내내 조용히 함께 했던 아이들의 진지한 눈망울에서 나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지택연

현장소식 ▶ 다섯

‘그림책나라’에 놀러 오세요!

김 지선 (광주 그림책 소모임장)

“그림책나라에 놀러 오세요.” 96년 한 해 동안 소모임 활동을 하면서 무던히도 즐겨 쓰던 말이다. 그림책나라에서는 교사들의 모임참관과 회원활동을 언제든지 환영하므로 울타리도 없고 담도 쌓지 않는 그림 같은

림책나라가 되겠다는 지향과 어쩌면 그렇게도 어울리는 말인가. 회지에 우리모임이 소개된 글에도, 보육학교 수강생들에게 선전한 회원모집 광고 글에도, 마무리 사업으로 기획한 외화사업의 주제 글로도 꾸준히 사랑

받으며 정들어 온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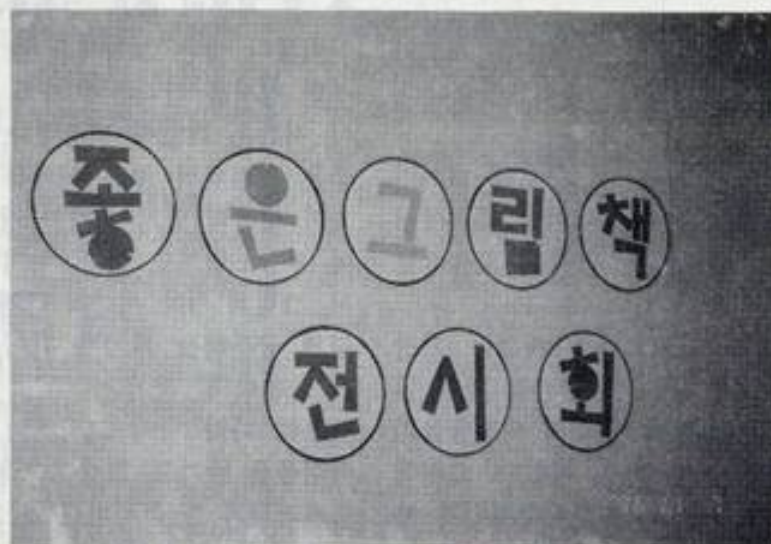
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 ‘그림책나라’는 지난 해 4월 광주탁아위원회가 7년 역사 동안 쌓아온 성과를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광주·전남지역의 모든 보육교사와 나누리라 는 큰 포부에 의해 징검다리 역할로 만들어 졌다.

회원들의 자주적인 요구와 조직의 발전 전망 속의 요구가 하나로 되어 만들어진 모임이기에 성원들은 모임에서 이루어낸 작은 결과물이라도 전체 회원들과 공유하려는 고민을 늘 해왔다.

한달에 두번씩 교박교박 모여 정해진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반응을 분석하여 비평하고, 그림책 고르는 올바른 관점을 찾고 기초를 튼튼히 다지기 위해 이론서 공부를 꾸준히 하고, 구연동화를 배우면서 모두들 바쁜 현장생활 속에서 어렵게 꾸려왔지만 평가는 항상 즐거움이었고 그림책나라가 개인의 생활까지 윤택하게 해준다는 고마움이었다. 8개월여 간 성원들은 ‘그림책’이라는 고유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도 쌓았고 그림책 관련 다른 분야에 까지 관심을 넓혀가며 모임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우리지역에서도 전례가 없는 모임이고 타지역의 운영사례도 알지 못했기에 그림책을 좋아하는 공통점만으로는 활동목표나 활동

내용을 선뜻 내오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중앙그림책소모임과 어린이도서연구회의 도움, 그리고 모임성원들의 거침없는 활동력으로 97년 활동계획을 우리만의 색깔도 찾아가며, 그림책 창작의 욕심도 부러가며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림책나라에 놀러오는 교사가 많을수록, 우리 네아이들은 더욱 아름답게 커나갈거라는 확신을 재확인하며, 작년 추운겨울 한 귀퉁이에서 13명의 여성들이 밤깊도록 두

눈 빛내며 따뜻하고 구수한 군고구마 화롯가의 정겨움으로 이야기꽃을 피웠던 행사를 소개하고자 한다.

96년 12월 10일 그림책나라에서는 내부적으로 축적된 일상활동의 성과를 광/탁/위 회원과 제1기 아이사랑 보육학교를 졸업하여 자료회원이 된 보육교사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그림책 나라에 놀러오세요”라는 제목으로 허름한 사무실에서 행사를 치렀다.

“.....8개월이면 한가지 주제에 관해 정통할 만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간이지만 실상 저희가 모인 횟수는 고작 13차에 지나지 않고 성원들이 모두 시설에서 종사하는 교사들이라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아주 가볍게 정해서 그림책에 관한 맛보기 정도로 계획했어요.

혹시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

석하신 분을 지금 당장 마음자세를 바꾸시고 가볍고 편하게 지켜봐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잡담을 하거나 장난스럽게 보시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도중에 실수가 있다거나 어리숙한 솜씨를 보이더라도 진지하게 저희들의 성장을 함께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림책나라에 놀러오신 여러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사는 첫 순서의 재미있는 구연동화까지 이어져 웃어야 할 대목에서도 참석자들이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했다.

구연동화발표는 지도교사를 빼고는 가장 자신 없어 한 내용이라 재미를 잃어 몇 명만 할 것인지 모두 할 것인지 의견충돌이 많았는데 결국엔 모두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림책나라 성원들은 모두 무대체질인가 보다. 서로 안하겠다고 빼더니만 막상 앞에 나서니 잠재력까지 발휘하여 실력을 보여주었다. 서로 잘했다고 자화자찬까지 하면서 구연동화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나!



그 다음 시간은 그림책나라가 원하는 좋은 그림책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우락부락 열소삼형제',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두드려 보아요'가 소개되었는데 모임 안에서 좋은 그림책으로 평가된 그림책을 원하는 일은 정말 즐거웠다. 우리 모임의 활동 목적 중 큰 부분이 좋은 그림책을 널리 알리고 아이들이 좋은 그림책을 늘 가까이해서 풍부한 정서를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 때 이 시간은 더없이 귀중했다. 그런데 평소에 좋은 그림책의 좋은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가며 설득력 있게 소개한 경험들이 많지 않아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작가에 대해서, 그림책 창작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더욱 깊게 공부하는 계기가 되어 이후 비평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창작 그림책이 소개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고, 그림책나라 성원들의 기를 올츠려들게 한 즉석비평시간으로 넘어갔다.

즉석비평은 참가자 누구나 전시된 그림책 중 마음에 드는 그림책을 골라 비평해보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이 비평을 하면 잘못된 관점을 바로 잡아주고 빠진 부분을 덧붙여

주면서 그림책에 관한 교사들의 견해를 수집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인데 그 몇 분 동안은 도대체 누가 그림책나라 회원인지 모를 정도로 너도나도 멋지게 그림책소개와 비평을 해주었다.

즉석비평을 위해 행사 전에 그림책 전시를 해두었는데 주인공이 되어보는 즉석비평에 대한 기대였는지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그림책을 골라 성실하게 비평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림책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훈적인 내용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림책은 재미이다' '우리 정서에 맞지 않는 그림책을 좋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등의 의견대립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서로의 비평에 공감하고 배우는 좋은 시간이었다.

'고니는 친구'는 그림만 봐도 이해할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변형시킬 수도 있으며, 신체표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개구장이 애리'는 아이들의 생활과 심리를 그대로 보여준 그림책으로 소재선택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그림이 아이들에게겐 낯설어 정서적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빨간 풍선'은 그림으로만 구성된 그림책이면서도 오히려 아이들의 창의력을 한껏 길러주는 매력적인 그림책이다.

'구리와 구라의 땀 만들기'는 숲속으로 들어가는 구리와 구라의 뒷모습 표현이 신선하고 구리·구라 글씨 색깔을 구리·구라 옷 색깔에 맞추어 재미있게 보여주는 좋은 그림책이다.

'강아지 땀'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 나라의 민족정서를 잘 표현했지만 강아지 땀의 모양이 너무 상징적이다.

'흰 토끼, 검은 토끼'는 흑백처리의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토끼들의 표정이 살아있어 밝은 모습을 찾을 수 있고 즐거움이 무척 마음에 든다.

이상이 즉석비평 내용이고 마지막 시간으로는 이론서 공부를 꾸준히 해온 결실의 주제발표시간이다. 도대체 그림책이 무엇인지에 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이 생겨나고 또한 좋은 그림책을 고르고 전파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왜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어야 하고 어떻게 읽어 주는 게 올바른지 읽어주는 것인지에 관해 준비된 자료를 발

표하였다. 이후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그림책을 시설에서 제공하는 방법이 있나?"

"녹음테이프를 들려주는 그림책은 좋은가?"

"그림책을 문자적습득으로 활용할 때 어떤 영향?"

"영어동화에 그림책을 보일 땐 어떻게 할까?"

"그림책은 선명한 윤색계가 좋은가? 목색도 좋은가?"

등의 질의를 받아 답하였다.

교사들도 아이들의 눈으로 돌아가 읽어주는 그림책을 그림 중심으로 보며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 시설에서도 새로운 그림책을 구입하면 교사 한 명이 의자에 앉아 읽어주고 다른 교사들은 그림의 구성구성을 살펴 보아 제대로 이해하여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보자는 제안도 있었다.

"..... 앞으로도 그림책나라에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고 저희도 그림책나라 회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림책 비평가로서 프로가 되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인사 말을 끝으로 행사를 마감하였다.

재정이 궁핍하여 계획조차 못했던 뒷풀이를 팜/탁/위의 지원으로 하게 되었는데 맥주 한 잔을 높이 들어올리며 '위하여'를 외치는 그림책나라 회원들의 눈빛은 더없는 뿌듯함과 긍지로 가득차 있었다.

그림책나라는 97년에도 그림책 비평의 질을 더욱 드높이고, 우리 나라 창작그림책을 골라 보급하는데 힘쓰고, 그림책 창작의 토대를 마련하고, 신입회원 관리를 내실 있게 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물 마른 한 알의 작은 씨앗이 아름답디 나무로 성장해 가는 과정처럼 그림책나라가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맑은 공기로 가득 찬 숲을 이루기를 희망한다. 그림책나라의 숲에는 온갖 새들의 지저귀음 속에서 뛰노는 건강한 아이들이 늘 함께 할 것이다.

어때요? 아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림책나라에 놀러오고픈 마음이 절로 생기지 않으세요? **저학년**

현장교육 사례-1

영아교육활동의 사례

김 연숙(씩씩이 어린이집 교사)

걸음마를 시작하는 연령에서부터 두 돌을 전후로 한 영아의 아이들은 유아의 프로그램처럼 집중을 요하거나 한 자리에 앉아서 하는 활동은 계획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어떤 교사든 지 느낀 것일 것입니다. 이 연령의 아이들은 매우 부산스럽고 무엇이든 만져보려고 하는 호기심이 강합니다. 따라서 제공된 놀잇감 보다는 주변의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에 관심이 많고 흥미 있는 동작을 여러번 반복하며 대부분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흥미 있어 하는 사물들을 교사들은 흔히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특성을 관찰한 결과 시험적으로 몇 개월 동안 실시했던 프로그램을 소개해 보고자 하니 현장의 교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활동을 계획하기에 앞서

- ▷ 일상에서 아이들을 늘 유심히 관찰한다
- ▷ 교사가 계획할 수 있는 활동은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
- ▷ 교사가 계획할 수 없는 활동은 '흥미꺼리'만 준비해주고 아이들의 놀이와 행동을 관찰한다
- ▷ 아이들 개별의 특정한 행동을 잘 관찰해 계획된 활동으로 연장시켜 줄 수 있도록 한다
- ▷ 아이들의 흥미와 반응을 존중하며 아이들의 '시도'와 '반복행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일상활동 계획 ◆

일상활동 계획은 어린이집에 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종이벽돌은 흔히 쌓기 놀이로 쓰이지만 교사가 계획하기에 따라서 - 높이 쌓아 무너뜨리기 놀이, 바닥에 깔고 올라가 걷기, 장애물 건너기, 길게 한 줄로 잇기놀이 등을 하면 실제 아이들은 집짓기 보다 더 흥미 있어 한다.

- ☞ 큰 BOX 놀이 ; 박스를 놓아주면 아이들은 터넘지나기, 안에서 밖으로 박 두들기기, 박스 위로 던지기등의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납작해진 박스를 볼록장에 넣어주면 양탄자처럼 박스 위에 올라앉기를 무척 좋아한다.

- ☞ 롤러후프 ; 자기들끼리 롤러후프 안에 들어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기도 하고 서로 반대편으로 끌다가 롤러후프가 두동강이가 나니까 반원을 가지고 달타기 놀이를 하고 논다.

- ☞ 손양말 ; 아이들의 양말을 손에다 끼워주고 엮드려 미끄럼타기를 계획했으나 아이들은 양말 낀 손으로 물건을 만지고 박수치기를 하고 기어다니기도 했다.

◆ 흥미꺼리 계획 ◆

흥미꺼리는 어떤 것이 돼도 좋다. 굳이 만들어 주지 않아도 좋다. 일단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놀이하는가를 관찰하고 유도해 주면 된다.

- ☞ 보자기 ; 보자기를 장난감 코너에 놓아주었더니 머리에 뒤집어쓰고 돌아다니다가 등에서 같이 쓰고 보자기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킁킁 웃고 즐거워했다.

- ☞ 종이봉 ; 신문지를 여러장 겹쳐 막아서 테이프로 붙여 주었더니 아이들은 갖가지 놀이를 했다. 봉으로 굴러가기, 굴러서 뛰어 오르게 하기, 신발 낀다 롤리기, 천정에 붙은 모빌치기등. 이것을 보고 천정에다가 큰 공을 매달아 주었더니 종이봉으로 치기 놀이를 했다

- ☞ 끈 아쿠르트병 ; 아쿠르트병 두 개를 끈으로 연결해서 아이들에게 주었다.
한 개 잡고 돌리기, 발에 걸고 부딪쳐 소리 내며 돌아다니기, 바닥에 굴리기 등의 놀이를 했다.

◆ 개별 특정활동 / 연관활동 ◆

아이들이 흥미있어하는 특정 행위를 잘 관찰하고 연관활동으로 확장시켜 준다.

- ☞ 한 아이가 코코넛적으로 롤러스틱 장난감 통을 열심히 두들기고 있다.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여 같이 장난감 통을 일정박자를 유지하며 말없이 열심히 두들기며 서로 쳐다보고 웃는다.

- ☞ 한 아이가 둥근 고무 바퀴를 입에 넣고 입김으로 먹어 먼지기를 하자 다른 아이들도 더 멀리 먼지기를 떠나 하고 있다.

- ☞ 한 아이가 냉장고에 붙은 자석 병뚜개를 냉장고에 던져 붙이기를 하고있다. 아이들에게 작은 자석을 주고 냉장고에 던져붙이기 놀이를 했다.

◆ 교육계획안작성방식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상 화 동	계 획						
	진 행						
	행 동						
용 미 꺼 리	계 획						
	진 행						
개 별 특 징 화 동							
연 관 화 동							

현장교육 사례-2

아이들과 함께 요가를 배워봅시다

박 인혜(봉천동 애기방)

몇천 년 전부터 행해지고 있는 요가 철학의 진수는 일상에서의 일반인들이 갖는 초조와 불안, 질시 등으로부터 탈피 마음의 조절을 이루는 데 있다.

요가는 몸과 마음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신체적인 수행법으로써 일상적인 몸과 마음의 상태를 초월한 절대 자유의 세계로 도달하려는 심신 수행법이다. 이렇듯 요가는 열심히 하면 일반인들도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조금만 해도 건강은 남는다.

위에 인용한 글과 같이 나는 나의 건강을 위해 요가를 시작했다.

요가 수행은 7년 동안 쉬지 않고 해야만 완전한 자기 것이 된다는 데, 3개월도 제대로 하지 않은 나의 수련기간을 가지고 요가를 이야기 한다는 게 오랜 기간 수행한 분들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다.

그러나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요가 철학의 해박한 지식이 아닌 비록 짧은 기간의 배움이지만.

이 배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한 경험을 중요시 여긴다는 생각에 민망함을 뒤로하고 내가 체험한 요가를 소개하고자 한다.

위에서 밝혀듯이 처음엔 나의 건강을 위해 요가를 시작했었다.

아이들과 함께 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었는데 조금씩 즐기 시작한 나의 요가체위를 자랑하고픈 어린 마음에 어느 날 아이들 앞에서 멋지게 물구나무를 서 보였다.

나의 굉장한 묘기(?)에 놀라고 신기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쭐해지며 한마디 던졌다.

“너희들도 하고 싶니?” 물론 대답은 들으나 마나, 난리도 아니었다.

그래 한번 시작해 보자구나.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성인용이라 생각해 아이들에게 맞는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어린이 요가’ 책에 나와 있는 쉬운 동작이라 생각되어지는 한발로 균형 잡기인 ‘학처럼 해봐요, 나무처럼 해봐요’ 등을 시도했었는데 생각과 달리 균형 잡는 걸 어

려워하고 너무 단순해서인지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실증을 내었다.

그래서 모크샤라는 책에 나와있는 내가 배운것 그대로 해 보자 라는 생각에 나와 똑같은 수행방법을 택해 요가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체위란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체조란 말로 바꾸어 사용했고, 요가 체위를 완전하게 하려면 호흡도 같이 병행해야 하는데 아직 어려서 인지 숨을 들이마시고 참는 것과 몸동작을 동시에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해 호흡을 뱃 몸동작 위주로 실시했다.

똑같은 동작을 3~4번에 걸쳐 동작시간을 조금씩 늘리면서 해야하는데 너무 장시간 하면 힘들고 지겨워할까 봐 2번으로 줄이고 시간도 짧게 잡았다.

원래 10여개의 동작을 완전하게 끝내면 30여분이 걸리는데 우리는 낮잠 자고 일어나서 약 10여분에 걸쳐 기상체조 대신 매일 수행을 해 왔다.

아이들 몸이니까 많이 부드러울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도시의 아이들이고 거의 하루종일을 놀이방안에서 생활해 운동량이 부족해서인지 생각과 달리 아이들 몸은 무척이나 굳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아파요", "잘 안 올라가요"를 연발해 가면서도 거의 모든 체위가 방바닥에 붙어있다시피한 자기들의 동작이 날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바닥과 떨어지는 것을 느껴는지 놀이방 들어서면서 부터 "요가 언제 해요?"가 인사가 되다시피 했다.

성취감과 자신감이 생기는가 싶더니 약간의 경쟁심마저 생겨 집에서 연습해 오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어쩌든 지금의 아이들 수준은 내가 감히 시범도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경지(?)에 올라 있다.

내가 한번 시범을 보이면 "이모 다리는 왜 벌어져요, 이모는 그것밖에 안 올라가요."등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옛말에 스승 만한 제자 없다더니 순전히 거짓말이다.

요가 수행후 아이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확실히 검증되어진게 아니지만은 내 나름대로 요가 때문일거야 자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요가수행을 열심히 하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소극적인 아이가 밝아지고 적극적인 모습을 띄어갔고, 감기의 빈도수가 현저히 줄어졌고, 밥을 잘 먹는다는 것이다.

요가는 우리들이 일하는 구조에서 올 수 있는 직업병 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와 더불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놀이꺼리라는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내 스스로 요가를 접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욕심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다면 이렇게 좋은 효과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가를 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부여해 주신 어떤 스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요가 수행시 준수사항과 체위 행법과 효과를 간단히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아래 나오는 내용은 생활지혜사에서 펴낸 모크샤(해탈)에서 발췌했다.

<요가 수행시 준수 사항>

- 수행시간과 장소는 되도록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 식전식후, 특히 배부른 상태에선 하지 않는다.(식전식후 1~2시간 전후 수행)
- 수행후 바로 목욕, 찬바람, 힘든 노동 삼간다.
- 규칙적으로 반복, 무리한 수행보다는 매일 조금씩 반복.
-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몇 가지를 하는 것이 효과적.
- 모든 체위는 호흡에 맞춰 정신집중 상태에서 정지.
- 생리기간에는 체위는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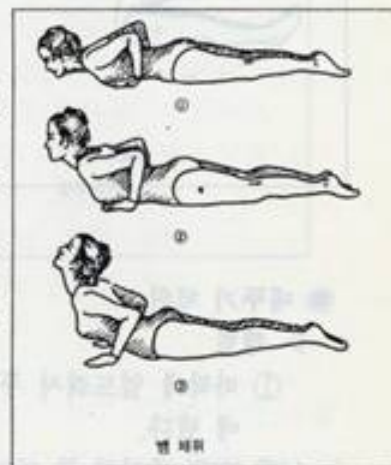
<체위 행법과 효과>

● 뱃 체위

▷ 행법

- ① 발등을 바닥에, 팔을 겨드랑이 밑 바닥에 대고 엎드린다.
- ② 팔을 펴서 상체를 들며 숨을 마신다. 이 때 머리는 뒤로 젖혀서 천정을 바라보고 숨을 최대한 마신다.
- ③ 숨을 멈추고 참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본래의 자세로 돌아온다. 이 동작을 4~5회 반복한다. 숨은 가능한 한 배로 깊숙이 마신다.

▷ 효과; 폐기능 강화, 대장질환 치료에 효과적(변비치료), 불면증, 소화장애, 정서불안에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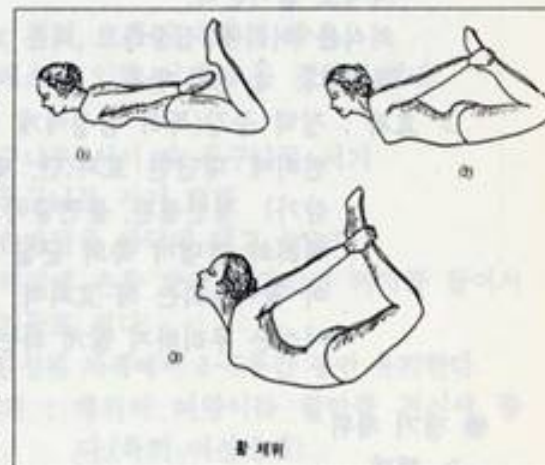


● 팔 체위

▷ 행법

- ① 엎드려서 양손으로 발목을 잡는다.
- ② 숨을 마시면서 머리를 들고 발을 펴듯이 들어올린다.
- ③ 숨을 배에 가득히 마셔서 바닥에 닿은 배가 단단하도록 하고 참다가 내쉬면서 본래의 자세로 돌아온다. 이 동작을 4~5회 반복한다.

▷ 효과; 비장과 위장에 특효, 소화기 계통의 활동 활발하게 한다.(단 소화력을 왕성하게 하니 살이 많이 찌는 경향이 있음) 자율신경, 특히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리적 생리적 안정감을 갖게 함으로 인생이 고달프고 자신이 없는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 등펴기 체위

▷ 행법

① 다리를 펴고 앉는다.



등펴기 체위

② 숨을 마신 후 멈춘 상태에서 머리를 숙이고 구부리면서 양 손으로 발 끝을 잡고 당긴다.

③ 완성된 자세에서 숨을 참다가 숨을 내쉬면서 앞으로 더욱 구부리고 항문 주위에 있는 근육인 괄약근을 조인 다음 숨을 마시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이러한 방법으로 4~5회 반복한다.

▷ 효과 ; 아래를 내려간 기를 끌어올려 주는 효과가 있어 피로, 우울증에 좋음. 양기가 부족한 사람, 여성과 노인에게 더 효과적인 체위. 살을 빼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

● 메뚜기 체위

▷ 행법

① 바닥에 엎드려서 두 팔을 펴고 손등을 넓적다리 밑에 댄다.

② 숨을 마시며 두 다리를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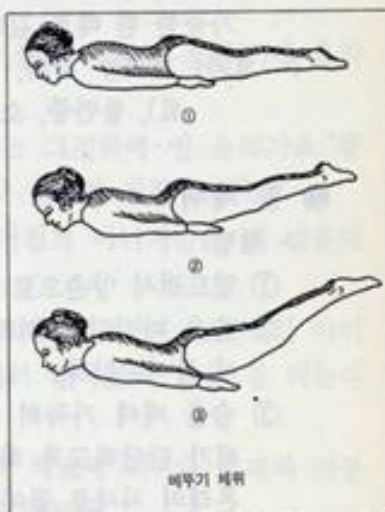
③ 완성된 자세에서 숨을 참다가 숨을 내쉬면서 처음 자세로 돌아온다.

의식은 허리에 집중하고 턱은 바닥에서 떼지 않도록 한다. 4~5회 반복 한다.

▷ 효과 ; 정력 증강(특히 남성에게 좋음), 성기능 강화, 변비에 대단한 효과(단, 탈항이 있는 사람은 삼가) 정신질환, 불면증에 좋음.

허리와 엉덩이 쪽의 군살 제거 및 처진 엉덩이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

여성은 무리하지 않게 하는게 좋다.



메뚜기 체위

● 쟁기 체위

▷ 행법

① 바르게 누워서 손바닥을 바닥에 댄다.

② 다리를 들어서 머리 뒤로 넘긴다.

이 때 발은 가능한 머리에서 멀리 떨어진 바닥에 닿도록 노력하고 손바닥은 바닥에서 떼지 않도록 한다.(초보자는 허리에 손을 받치고 한다)

③ 호흡은 자연스럽게 하며 4~5분 정도까지 자세를 유지한다.

▷ 효과 ; 척추를 눌러 바르게 펴주는 효과.

생리통, 부인과 질환에 효과적. 배가 나온 사람 뱃살 빠짐.



쟁기 체위

● 물고기 체위

▷ 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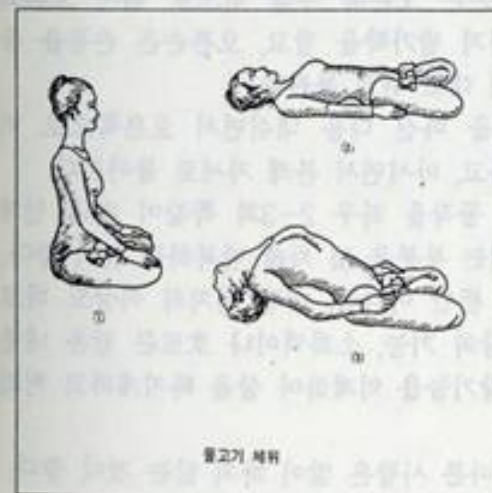
① 결가부좌를 하고 눕는다.

② 팔꿈치로 상체를 들어 머리를 바닥에 받친 다음 두 손으로 엄지발가락을 잡는다.

③ 초보자는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다리를 펴고 팔꿈치를 바닥에 대어 상체를 들어 올린다. 이 자세를 2~3분간 유지한다.

▷ 효과 ; 기관지, 폐가 약해서 일어나는 해소, 천식, 호흡기 질환에 좋음.

스트레스로 인한 어깨나 등 결림에 좋음.



물고기 체위

● 역물구나무 서기 와 물구나무 서기

▷ 역물구나무 서기 행법

①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눕는다.

② 허리에 손을 받쳐서 다리와 허리를 들어서 거꾸로 선다.

③ 완성된 자세에서 4~5분간 동안 유지한다.

▷ 효과 ; 체위의 여왕이라 할만큼 전신에 좋다.(특히 여성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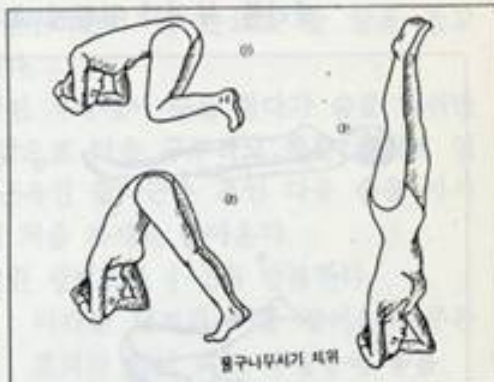
동물에게는 없는 척추, 위, 자궁, 무릎질환은 인간이 직립에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직립으로 인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 역물구나무서기와 물구나무서기를 매일 수행하면 주름이 없어지고 늙지 않는다고 요가경전에 나와있다.

● 물구나무 서기

▷ 행법

- 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가락지를 끼고 손과 팔꿈치가 정삼각형이 되게 하여 바닥에 댄다.
- ② 정수리를 바닥에 대고 각지 긴 손바닥으로 머리를 감싸듯이 한다.
완성된 자세에서 7분 정도까지 유지한다.
초보자는 익숙한 자의 도움을 받아서 벽에 기대어서 거꾸로 선다. 그러나 기대지 않고 서야만 이 체위의 효과가 완전히 나타난다.



물구나무서기 체위

▷ 효과 ; 모든 체위의 왕이라 할만큼 전신에 좋다. (남성에게 더 효과적)

질병 치료나 건강 증진 또는 불로장생을 위해서 빼놓을 수 없다. 단, 허리가 약한 사람, 높은 고혈압 환자, 눈이나 코 또는 귀에 심한 열과 함께 통증이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게 좋다.

● 비틀기 체위



비틀기 체위

▷ 행법

- ① 먼저 왼쪽 다리를 구부려서 발바닥을 오른쪽 넓적다리 밑에 두고, 오른쪽 다리는 구부려서 왼쪽 넓적다리 밖에 세운다.
- ② 왼손은 오른쪽 무릎 밖으로 해서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잡고, 오른손은 손등을 등에 대고 뒤로 돌린다.
- ③ 숨을 마신 다음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비틀고, 마시면서 본래 자세로 돌아온다.

이 동작을 좌우 2~3회 똑같이 하나 인체

의 불균형 정도에 따라서 안되는 부분을 몇 차례 반복하는 것이 좋다.

▷ 효과 ; 외형상의 육체 불균형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내장 위치의 이상도 바로 잡는다. 디스크 신경통에 효과. 내장의 기능, 소화액이나 호르몬 같은 내분비의 기능 원활. 살을 찌게 하는 비장기능을 억제하여 살을 빠지게하고 허리를 가늘게 함.

단, 좌우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른 사람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사자 체위



사자 체위

▷ 행법

- 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쭉 펴고 손을 무릎에 얹고 앉는다.
- ② 턱을 당기고 입을 크게 벌려 허를 길게 빼서 가슴에 닿도록 한다.
이때 호흡은 입으로 크게 복식 호흡을 하고, 눈은 크게 떠서 코 끝을 바라본다.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자세와 같이 2~3분 정도 한다.

▷ 효과 ; 안면 신경마비나 편도선이 붓는 등의 목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침샘 자극해서 노화방지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짐.

건강하게 살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한몸짓기 건강요법 II

- 건강한 어머니가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

어린이 건강교육 연구회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현대의 어머니의 몸과 아이의 건강
3. 난치성질환에 대한 한몸짓기생활건강요법
4. 맺음말 - 현대인을 위한 난치병대책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무척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듯 성인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도 그렇게 명명백백한 자연의 순리인 것 같은데 그 순리가 이제는 더 이상 순리가 아닌 듯싶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 또한 그 자체가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자연의 대법칙에서 어긋나게 되는 심각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그 무엇을 도

모한다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다를바 없다고 본다.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곤충 한마리, 풀 한포기가 자연의 모진 역경을 이겨내면서 자신의 미래를 재생산 해내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새끼를 낳기 위해 목숨을 바쳐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제외한 자연의 모든 몸들의 강인한 생명력은 감동적이다 못해 가슴이 저미도록 아름답다.

인간을 제외한(물론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 역시) 자연의 다른 몸들은 자신이 살아야 하는 명백한 목적을 알고 있다. 자연 속에서 태어나서 자연의 법칙대로 자연이 주

는 온갖 기쁨과 역경, 풍요로움과 고난을 누리다가 또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신의 종을 자연에 남기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자연에 돌려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가 징그럽다고 진저리치는 바퀴벌레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자신은 인간이 뿌려댄 독한 살충제에 중독되어 죽어가면서도 새끼를 남기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쓰는 그 자연의 섭리를 우리는 알고 있을까?

인간을 제외한 자연의 모든 몸들은 자신이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 모든 일을 자신이 낳을 다

음의 세대, 즉 자신의 새끼의 운명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 같다. 우리 인간도 애초에 그랬으리라 생각한다. 자기가 고생고생하면서 낳고 기를 새끼한테서 그 무슨 덕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것이 삼라만상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 자연의 몸으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본다.

몸이 대자연의 순리를 따르면서 살때 어미의 몸도, 새끼의 몸도 천연하리만큼 건강하고 아름다웠다. 그 찬란히 빛나는 어린 아이의 몸에 미래의 희망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빛이 났다. 제왕이라할지라도 어린 아이 몸에서 발하는 희망의 빛을 감히 무시할 수 없었다.

남의 집 셋방살이에 출고 배고프고 앞날이 막막해도 하루하루가 아기자기 살맛이 났던 것은 새끼 키우는 맛, 새끼 크는 기쁨 때문이었으리라. 그 자체가 생활이면서 목적이며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어떤가? 지금 우리에게 아이는 누

구인가? 아이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는 누구인가?

우리의 몸으로 낳은 새끼들이 온 몸이 희망덩어리가 되어 우리의 삶을 밝혀주고 있는가? 새끼들의 부모인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처, 고향이 되고 있는가?

우리의 새끼들은 더 이상 희망덩어리가 아닌 것 같고, 우리들은 더 이상 아이들의 안식처, 푸근한 고향이 아닌 것 같다. 희망과 안식이 없는 우리의 삶은 화려한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하루하루가 지겹고 시들어가기만 한다.

2. 현대의 어머니의 몸과 아이의 건강

오존층이 뚫렸다는 것은 곧 하늘이 무너졌다는 얘기다. 하늘이 무너지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杞憂)가 아니라 현실이다. 하늘이 무너진 현실에서 우리의 노력은 솟아날 구멍을 찾는 그것이다. 솟아날 구멍을 찾는 일은 너무도 만만찮은 것 같다. 어디를 봐도 지금으로서는 다 막혀 있는 것 같다. 이제까지의 대자연의 역사 중에 지금처럼 어려웠던 적은 없으리라. 과거 역사의 어떤 지혜와 지식도 현대 하늘이 무너진 현실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현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은 과거와 패러다임이 다른 것이다. 패러다임이 다른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과거의 가치관과 방식대로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의 생활은 더더욱 헤어나기 힘든 미궁 속에 빠져든다.

오존층이 뚫리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몸도 무너졌다. 산의 물줄기가 끊기고 생물이 마르듯이 우리의 몸도 그렇다. 먼저

아이가 수태되고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여자의 자궁이 예전 우리 어머니 때의 자궁과 다르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수태기간은 몸의 일생 중에 가장 창조적이고 행복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태(胎)야말로 천국이고, 낙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누구도 어머니의 태(胎)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온전한 몸의 요구와 행로에 반(反)하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고생과 역경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1) 어머니의 태(胎)와 아이가 생기는 원리

어쩌면 몸의 일생은 이미 어머니의 태(胎) 안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닐까? 더 근본적으로는 어머니의 태(胎)가 아이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 어머니의 태가 천국인가, 지옥인가에 따라 아이의 체질과 성격, 운명 등이 결정나는 것은 아닐까?

현대 어머니들의 태는 어떤가? 새끼를 수태(受胎)할 수 없는 불모의 땅이 되어 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처녀지(處女地)처럼 비옥한 땅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수태했다해도 이미 어머니의 태(胎) 안에서 부터 아이는 온갖 질병을 앓는다. 태어난 걸모습은 사람의 형상을 띄고 있어도 속의 오장육부는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여자의 자궁엔 오장육부의 기(氣)가 다 통해 있다. 간(肝)은 7개의 소엽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 동쪽 3개의 소엽에 저장되어 있던 피가 자궁으로 가서 월경을 이루고, 또한 수태했을 때 아이를 키우는 피가 통하는 것이다(간삼엽(肝三葉)에서 난소혈(卵巢血)이 화생(化生)하여 아기가 된다). 간삼엽이 하늘의 정(精)과 땅의 영(靈)과 사람의 신(神)의 기운을 얻으면 위로는 하늘 기운, 아래로는 땅

기운, 가운데는 사람 기운이 되니 간 세제 잎의 조화는 만능(萬能)이며, 만가지 묘(妙)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의 간이 몸으로 들어오는 온갖 독(毒)을 해독시키지 못하면 정화되지 못한 피가 그대로 자궁으로 흘러들어가 아이의 핏줄을 돌게 된다. 그러면 어머니의 피를 받아 오장육부를 만들어야 할 아이의 오장육부가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제왕절개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어머니의 경우는 제왕절개를 통하여 우주의 기(氣)가 집약되어 있던 단전(丹田)이란 혈자리가 없어진 경우이므로 그 폐해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여자의 경우만 해도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보통 5년 뒤면 간병(肝病)이, 10년 뒤면 신장병(腎臟病)이 오게 되므로 우주의 기를 모으지 못하는 어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기르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하늘과 땅, 산과 바다를 뒤덮고 있는 공해독으로 하여 점점 기형아가 많이 생기고 있다. 손가락이 하나 더 있고 하는 기형은 기형이라할 수도 없을만큼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들도 보도 못하던 별 희괴망상한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옛날엔 임신 중에 위낙이 못먹고 육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여서 아이가 기형아라해도 외형적인 것에 그칠 수가 많았는데 현대에는 걸은 멀쩡해도 내부의 기능이 기형이라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어머니의 자궁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입원해야 하는 경우 이미 뱃 속에서 부터 오장육부가 생겼다 말았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지구 진화 40억년의 역사의 응결체라 할 수 있는 사람의 몸이 어머니의 태 안에서 온전치 못한 것을 그 무슨 수로 온전케 할 것인가?

우리는 몸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질병 또는 몸의 이상도 너무 쉽게 본다. 몸이 이루



어지는 그 원리와 과정은 인간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도 낱알히 밝히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재현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상이 생기면 현대의 첨단과학으로 다 가능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낸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될거라고 생각한다.

아이는 수태되는 순간부터 어머니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일하는 그 모든 행위와 내용에 따라 시시때때 무진장한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의 형상대로 이루어져 간다. 우리 몸을 이루는 60조에 가까운 세포 하나 하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도 수태한 여자의 몸가짐, 행동가지가 무척 중요하게 여겨지고 임신부가 몸과 마음을 조신할 것을 강조해 왔지만 가공할 화공약독, 공해독으로 만연된 현대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어머니의 자궁은 거의 다 지옥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월경불순, 생리통, 냉대하, 자궁냉병, 자궁근종, 자궁암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질병으로 자궁이 온전치 못하다. 현대 여성의 자궁이 이 지경이 된 것 자체가 공해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종이 기저귀, 비누나 각종 화학성분의 질세척제, 피임약, 각 종의 호르몬제, 제왕절개, 임신중절수술, 항생제나 화학요법제의 복용, 각종의 피임기구 사용 등등. 거기다 찬 음식(쥬스, 과일류, 냉동식품 등)을 무절제하게 먹는 것, 에어컨의 사용, 팬티스타킹에 거들

류의 착용, 높은 신과 꼭 죄는 옷의 착용 등으로 자궁은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생활상의 이런 요소들로 하여 자궁은 어름장처럼 차지고(손발이 찬 그만큼 자궁은 차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당연히 자궁 안의 피줄기가 나빠져서 어혈, 죽은 피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각종의 병균들이 득실거려 자궁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자궁의 온도가 35도의 상태에서 아이를 수태하게 되면 그 아이의 수명은 30년 안팎이라 한다. 보통의 36도이면 아이의 수명은 60살, 37도이면 90살이라 한다. 삼라만상의 이치가 그렇듯이 차게 되면 모든 활동이 위축되기 마련이다. 살아 있는 것은 활동력이 왕성하여 주위를 따뜻하게 하지만 죽어가는 것은 움추려 들면서 차가워져 간다.

뱃 속의 아이와 부인의 병을 다루는 서양 의학의 산부인과에서는 몸의 차고 더운 것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부인의 자궁이 냉해서 오는 많은 질환에 대해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바른 출산과 바른 탄생

아이를 낳는 것과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원래는 같은 말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같은 말이 아니게 되었다. 아이가 스스로 태어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아이를 낳는 것만이 남아 있다. 어머니와 아이가 같은 운명, 한몸이 되어서 일생의 가장 중요한 출산과 탄생의 일을 치루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나올 때가 됐으니까 뱃속의 아이를 꺼내는 식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더구나 아이를 수없이 죽이던 살인대 위에서 마참가지로 아이를 수없이 살해하

던 그 손으로 순결한 아이의 몸을 받아내는 것이다.

아이가 없는 것이다!

온전한 의미에서 어머니도 없는 것이다!

아이를 뱀 겁 많고 이기적인 여자와 기능적인 산부인과 의사가 있을 뿐이다.

아이가 온몸을 틀면서 어머니의 산도를 빠져 나오는 과정은 일생 일대의 최고의 고통과 위험이면서 또한 최고의 기쁨과 자신감이다. 어머니가 지루한 산고를 겪으면서 아이를 낳는 과정은 또한 아이의 그것과 똑같은 것이다. 아이와 어머니는 태어나고 낳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태어나고 낳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목숨을 하늘에 맡긴 저승으로의 길이기도 하다.

아이는 필사적인 힘을 다해 어머니의 산도를 뚫고 나오는 데 이 과정은 지독히도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일생일대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온 몸을 어머니의 질의 근육으로 애무(愛撫)를 받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축복은 태어나는 과정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어머니가 오로지 아이가 별 탈없이 태어나기만을 필사의 노력으로 하는 그 기원에서 우리나라는 애무를 받는 것이다. 분만촉진제의 방해(!)를 받지 않고 순전히 아이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산도를 뚫고 나오는 과정은 몸이 이후에 세상의 험한 세파를 뚫고 나가는 데 성격적인 기초가 되는 매우 소중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아이와 어머니가 서로 호흡을 맞추어 마침내 아이가 어머니의 자궁 밖으로 나오면 그 순간 어머니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희열과 자신감, 안도감을 온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 세상의 어떤 힘도 꺾을 수 없는 유대가 생기는 것이다. 아

이에게는 효성(孝誠)이, 어머니에게는 모성애(母性愛)가 피어나는 것이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에 대한 어른들의 물지각한 횡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제왕절개가 아니면 아이를 낳을 수 없을만큼 어머니의 자궁이 기형이 되 어버린 경우도 많지만 잘못된 잘못된 것이다. 그 모든 훌륭한 일, 의미있는 일을 피하기 전에 먼저 몸을 몸답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구해야 할 것이다. 아이가 아이답게 태어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 그리고 그 천부적인 과정은 아이의 고유한 권리이면서 어머니로서의 권리이기도 하다. 이 천부적인 권리가 온전하게 지켜질 때 어머니의 건강도, 아이의 건강도 보장될 수 있는 것이며, 가정과 사회, 온 우주의 평화가 가능한 것이다.

3. 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몸짓기 생활건강요법

1) 난치병을 대하는 기본 관점과 자세

어린이평화학교에서는 어떤 경우도 불치병은 없다고 본다. 몸에 생긴 병은 다 고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다는 조건이 따를 뿐이다. 병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법은 없다. 심지어 외상의 경우라 해도 우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드문 것이다. 병은 우주의 대법칙에서 어긋난 생활의 결과가 수십년 누적이 되면서 어느 날에 가서 병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급방 태어나는 아이가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도 수십년의 시간이 흐른 결과이다. 따라서 질병을 대하는 자세는 질병의 근본원인인 생활의 문제로부터 구하려고 해야 하며, 단박에 낫는 그 어떤 묘방을 찾으려고 해서 안된다. 난치병일수록 질병의 원인이 생

활양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으므로 먼저 그 자신의 오랜 인내와 정성으로, 그리고 우주 대자연의 법칙에 가까와지는 생활로의 변화에 의해 낫고자 해야 한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공해독과 화공약독으로 하여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건강에 자신할 수가 없는 데 이럴 때일수록 우주로서의 몸의 요구와 행로를 먼저 보고 그 기준에 따라 생활을 영위하는 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병을 고친다는 것은 몸을 바로 세운다는 것이다. 몸이 바로 서기 전에 병이 낫는 경우는 없다. 의료적 처치, 특히 현대적이고 간편한 의료 방법에 의해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도둑놈의 심보라 할 수 있다. 의료가 또 하나의 무시 못할 공해가 되고 있는 요즘에 우리의 맑고 순결한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몸을 대하는 지혜와 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라고 본다.

2) 어린 아이들의 난치성 질환을 위한 처방들

(1) 알레르기 천식

가미귀통탕을 달인 약물에 호도기름을 한 숟가락씩 혼합하여 무시로 먹인다.

* 가미귀통탕

백복령 5돈, 당귀신 3돈, 산수유 2돈, 산약 3돈, 불에 볶은 맥아. 청피 각 1돈, 오미자 5돈, 상록용 1돈 반 (1첩의 양)

* 호도기름 내는 법

호도의 속껍질을 벗긴 호도살 한 흡을 절구에 살짝 찧어 밥이 젖을 때 그 위에 삼베보자기를 편 뒤 찧은 호도살을 펴서 얹고 숟뚜껑을 덮어 놓는다. 약 1시간정도 켜다. 이렇게 2~3번 켜 것을 두고 기름을 내는 데 쉽게 기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릇가게에서 파는 수동식 생즙기를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편 호도살을 삼베보자기에 싼 채로 천천히 힘을 가하면서 짜면 기름이 나오는 데 이를 차수저로 하나씩 먹인다. 호도기름만으로도 아이들의 기관지염, 폐염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다. (참고로 몇 달을 두고 낫지 않는 기관지염이나 급성폐렴에 호도기름 약간으로 며칠만에 쾌차하는 경우도 많다)

위의 처방은 어린아이가 기관지가 허약하여 생긴 해수, 천식에도 유효하고, 백일해, 결핵에도 유효하다. 성인이나 노인의 경우는 위 처방의 양을 3배로 하면 된다.

(2) 알레르기 피부

태독(胎毒)으로 하여, 또는 장의 숙변으로 하여 태열이나 아토피성피부염을 앓는 아이들이 이외로 많다. 피부과의 약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원인치료가 되지 않을 뿐더러 고질적인 질환이 되기 쉽다.

알레르기 피부의 아이들은 우선 먹거리에서 우유, 계란, 닭고기, 인스턴트의 식품, 냉동식품, 튀김류를 피하면서 화학성유의 옷, 비누 등의 사용을 적극 피해야 한다. 그리고 집안의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고 피부호흡을 강화시키기 위해 밖에서 자주 뛰어 놀게 해야 한다.

알레르기 피부는 몸 안의 독이 자연적으로 해독이 되지 않고 피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잘 체한다거나 토한다거나, 변비나 설사가 있기 쉽다. 그 외로 체질적으로 간장이나 콩팥의 해독기능이 약해서 오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면 체질을 강화시키면서 피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느릅나무뿌리껍질(전재상에서는 유근피라고 한다) 한근 반을 큰 찜통에 물을 가득 넣어 20시간 정도 끓인다. 그런 다음 유근피를 건져내고 아홉번 구운 죽염을 250~300그램을

쉬어 한되 반가량 끓인다음 두점의 팥묵천으로 걸른다. 그러면 짙은 자주색의 걸죽한 유죽액이 되는 데 이를 두고 무시로 문제가 있는 피부에 바른다. 그리고 죽염을 무시로 먹으면서 몸 안의 독을 제거한다.

(3) 뼈질환

요즈음엔 소위 성장통을 앓는 아이들이 많다. 가끔 심한 운동이나 무리하게 걷고 난 뒤 다리가 아프다는 것은 정상적이라할 수 있지만 무시로 다리가 아파서 운다거나 하는 경우는 아직 검사상으로는 문제가 없다해도 뼈가 약한 것이고 관절염, 골수염, 골절상을 당하기가 쉬운 상태인 것이다. 이빨의 경우도 뼈의 연장이라 볼 수 있는 데 유치가 녹아들어가는 경우에도 상당한 주의를 해야할 것이다.

아이들의 뼈를 강하게 하기 위해 우유를 먹이고 칼슘영양제를 먹이는 데 이외로 효과가 없을 경우가 많다. 현대 아이들의 약한 체질은 영양결핍의 문제가 아니므로 손쉬운 영양요법은 실패한다. 공해독과 화공약독, 그리고 식사의 불균형에서 오는 체질의 악화가 아이들의 각종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킨다. 원래 아이들은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은 편인 데 요즈음엔 손발은 얼음처럼 차면서 가슴과 얼굴에만 열이 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피돌기가 나쁘고 몸의 저항력이나 면역능력이 약해진다. 그래서 걸으로 등치는 커도 뼈는 약해서 운동신경이 둔하고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 있어먹거나 산만해진다.

충분한 영양으로 혈액 중에 칼슘이 많아도 피돌기가 나쁘고 몸이 차기 때문에 혈액 중의 칼슘이나 뼈를 이루는 각종 무기질이 뼈 안으로 가지 못한다. 혈액 중에 남아 도는 무기질은 오히려 혈관의 노화를 촉진할 뿐이다.

아이들의 약한 뼈를 강화시키는 데는 홍화씨(토종과 수입산이 있는 데 효과면에서나 가격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가 가장 좋다. 홍화씨는 뼈가 부러진데 거의 24시간만에 붙게하는 놀라운 효능을 가진 것인데 성인들의 경우 골다공증, 골수염 등에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장수약으로 어떤 보약에 앞선다.

수입 홍화씨는 오랜 시간을 두고 먹는 경우가 아니면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데 가끔적 토종 홍화씨를 구하여 약한 불에서 노릇노릇하게 볶아서 갈아 쓴다. 곱게 갈아진 경우는 차스폰으로 하나씩 하루 두번 정도 빈속에 먹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리차처럼 끓여서 무시로 먹는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이유식에 타 주거나 홍화씨 끓인 물을 자주 먹이면 좋다. 그리고 홍화씨 끓인 물에 죽염을 타서 마시게 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것이다.

4. 땃음말

-현대인을 위한 난치병 대책-

그것은 날마다의 밥상에서 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조상들이 발견하여 이제껏 후손들에게 남겨 준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등이 그것이다. 어머니의 지혜와 정성으로 잘(!!) 만들어진 이들 전통음식들이야말로 최고의 약이고 치료제이다. 현대의 공해독과 화공약독으로 부터 우리의 몸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밥상에서 먹는 이들 최고의 약 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유산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너무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너무도 무시하고 있다. 이 유산들의 위대성을 논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다. 여기서는 그 위대성을 언급하는 정도로만 하고 후에 기회가 닿으면 깊게 고찰하기로 하자. **저작인**

탁아소 별곡

부산 우리들의 집에서 있는 일

놀리지 마래이

오름이(4세)가 오줌을 싸서 바지를 벗고 있는데, 정인이(4세)가 옆에서 보고 있었다.
오름이 : 정인아 내 바지 벗는 데 놀리지 마래이~
정인이 : 고개를 끄덕이며
정인이 : 그래 그냥 보고 있을께! 그리고는 오름이가 바지를 벗는다.

너저 엄마 와 그라노?

토요일 오후 한술이가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려는데 볼펜이 없다.
한술이 : 하늘개 선생님! 볼펜 좀 주세요
하늘개 선생님 : 뽀뽀하면 주지.
한술이가 하늘개선생님한테 뽀뽀를 해준다.
엄마별 선생님 : (옆에 있다가) 한술아! 선생님한테도 뽀뽀해줘
한술이 : 안해요 (슬금 슬금 뒤로 간다.)
엄마별 선생님이 한술이를 억지로 껴안자,
한술이 : (옆에 있던 윤신이를 보며) 윤신아! 너저 엄마 와 이라노!!
하늘개·엄마별 선생님 : 푸하하하!! <엄마별선생님 윤신아 엄대엄>

어느날 봉고 안에서

그날 따라 차안에서 몹시 장난이 심한 회근이에게 주의를 주었다.
선생님 : 회근아 달리는 차안에서 그렇게 많이 떠돌고 장난을 치면 안되지요?
회근이 : (옆자리 지민이에게) 지민아! 선생님이 니보고 조용히 하란다
선생님 : 아니. 지민이 말고 회근이 말이야
회근이 : (또 옆자리 지민이에게) 지민아! 선생님이 니하고 내하고 조용히 하란다.

새 대문을 달았는데

오후 간식상에 모두 둘러 앉아 간식을 막 먹으려는데 태권도 학원을 다녀온 민균이가 씹씹거리며 들어오면서
민균이 : 선생님 왜 문을 안 열어줘요
선생님 : 왜
민균이 : 문이 안열리지않아요
선생님 : 그럼 어떻게 들어왔는데
민균이 : 대문 넘어들어 왔지요 뭐
선생님 : 잉.... **저작인**

그림책 소개

옛 이야기의 재미

오 윤정(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

그림책을 좋아하는 교사모임(이하 그림책 모임)은 그림책을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그림책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임이다. 작년 11월부터 그림책 모임에서는 옛이야기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우리 모임 성원들은 그림책과 함께 옛이야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동안 그림책만 공부하다가 이번에는 옛이야기에 대해 공부하기로 하였다. 공부한 지 얼마되지 않아 연구의 수준이 낮지만 다른 교사들이 궁금해하기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나를 가끔 팔죽할머니라 부른다. 이 별명이 생긴 것은 내가 몇번 '팔죽할머니와 호랑이'를 들려 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영아담당교사라 이야기를 들을 만한 아이들이 없었는데 오후 시간은 큰 아이들이 영아반을 자주 들락거린다. 그래서 영아반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하고는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를 들려주었다. 대부분의 교사들도 아는 이야기이니 즐거리는 생략하겠다. 팔죽 할머니랑 여러 물건들이 나와서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다. "할멈, 할멈, 왜 울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 해서 운다." "팔죽한그릇 주면 안 잡아먹게 하지." "그래" 이 말을 자주 반복해서 하다 얼마쯤 가서 아이

들에게 "할머니가 뭐라 이야기할 것 같아?" 하고 물으면 아이들은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 해서 운다." 라고 답한다. 그렇게 주고받다가 다시 호랑이가 나타나고 그 호랑이는 주고, 할머니는 잘 살았다 하고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또 해줘." 하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들이 오후에 내게 와서 "또 팔죽 호랑이 이야기 해줘." 했다. 그래서 또 들려주고 어느날은 역할극까지 했다. 모두 호랑이를 한다고 해서 열마리의 호랑이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다음은 각자 하고 싶은 물건이 되어 역할극을 했다.

한참 뒤 어느날 점심을 먹으면서 지수가 "할멈"하고 나를 불렀다. 내가 "영?" 하고 "난 할머니 아녜?" 하고 슬쩍 묻자, 옆에 있던 다운이가 할머니 아냐, 그냥 팔죽이라 불러."했다. 그래서 난 지금도 가끔 팔죽이었다, 할멈이었다. 한다.

이 일 이후 난 옛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문학인지를 알게 되었다. 옛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쉬운 문학이다. 옛이야기는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이다. 옛이야기를 만든 이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 한 것은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살아 있다는 것이다. 옛 사람들이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었다는 얘긴데, 그것은 참 재미있기 때

옛이야기
들려주기

보리

콩지 닳 발
주둥이 닳 발

서명호 글 · 김성민 그림



보리

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재미없는 이야기를 누가 들려주겠는가? 그리고 입으로 전해졌기에 단순하고 간결하다. 글에는 군더더기가 업소 줄거리가 거침없이 쭉쭉 진행된다. 그래서 옛이야기에는 성격묘사나 배경의 묘사가 자세하게 이야기된 것이 없다. 또 반복적인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다. 팔죽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똑같은 일이 자주 반복된다. 이것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한다. 아이들의 입맛에 맞다. 그리고 옛이야기의 결론은 확실하다. 할머니를 잡아먹으려 했던 호랑이는 죽는 것으로 끝난다. 어색한 화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호랑이가 죽은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 것 같다. 거기다가 우리 옛이야기이기에 우리 말이 갖는 재미와 정서가 배어 있다. 이 내

용은 그림책 모임에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실제 아이들에게 들려주다 보면 확실히 알게 된다.

그림책을 좋아하다 보니, 전래동화 그림책이 많은데 아이들이 그림책보다는 교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 들려주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에 그림책 모임에서 더 공부하고 이후 보고할 예정이다.

요즘은 젊은 부모들도 옛이야기를 잘 모른다. 교사들 또한 시작은 했는데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옛이야기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옛이야기 들려주기(보리출판사), 옛이야기 보따리 시리즈를 보았으면 한다. **서명호**

육아일기

유빈이와 엄마, 놀이방

나 은미 (고양시 오손도손애기방 교사)

일하는 엄마들이 가장 어렵고 항상 힘들어하는 것은 다름아니라 아기 키우기입니다.

지난 삼년동안 어린이집에서 일하며 엄마들과 많은 고민거리를 함께 나누고자 애썼지만 '그래 이게 다 엄마들의 문제이자 끝나의 문제로구나'라고는 와 닿질 않았습니다. 만 이제 유빈이 엄마가 되고 보니 여성이라면 대부분 언젠가는 겪게 될 일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유빈이가 태어나고 아기 키우는 재미에 쫓겨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어느날 문득 '이러다가는 다시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기 앞서 여성이 통과해야 할 힘들고도 큰 관문, '육아'라는 엄청난 큰 문제가 드디어 실제 상황으로 펼쳐졌습니다.

아기는 엄마손이 필요할 때까지 키워야 한다, 적어도 첫돌까지는 키워야 한다. 젖먹이 때까지는 키워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양립할 수 없을 것같은 일과 육아에 대한 답답한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아빠는 유빈이가 삶에 희망이라고 합니다. 엄마에게도 유빈이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입니다. 그러나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한 호구지책을 떠나 사람다운 생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육교사인 유빈이 엄마에게도 육아와 일은 동시에 해결하기가 참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일과 아기를 함께 놓고 고민하면 그 답을 찾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영원히 고민 만하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은 일, 육아는 육아, 따로 떼어서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힘들게 일한 만큼 보람과 즐거움이 컸던 오손도손어린이집의 문을 닫고난 후 밀려든 허탈감이 보육교사일에 대한 애착을 더욱 강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보육일에 대한 애착이 커질수록 유빈이 키우기에 대한 생각도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일은 일, 육아는 육아....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오손도손어린이집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속에서 생겨난 보육교사로써의 신념이 그 동안의 활동 중단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공백의 시간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불안감을 낳았고 새로운 시작을 안달해 할 수록 그 불안감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다시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어렵게 일을 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다시 유빈이가 걸렸습니다. 일과 육아를 따로

떼어내어 고민하려고 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보육교사이면서도 유빈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자기에와 남의 애를 같이 보질 않는다는 통설 때문이었습니다.

친가나 외가의 할머니들께서 유빈이를 봐줄 수 없어서 보육시설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살펴봐도 영아를 보육하는 곳이 드물었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고민 끝에 형편이 되는대로 소규모 놀이방이라도 직접 운영하면서 육아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려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격려하며 96년 12월 놀이방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8개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랑만 놀던 유빈이가 언니 동생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아이들 노는 모습을 보고 좋아했던 유빈이가 언니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이곳 저곳 기어다니며 훨씬 많아진 놀이감을 살펴보고 가지고 놀며 혼자서도 잘 놀았답니다. 엄마랑 선생님을 붙어 다니며 싸우는 언니들을 감시하러, 뒤집지도 못하면서 서려고만 하는 4개월 된 동생 보살피라, 간식 준비 점심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사이에 유빈이는 방 한쪽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모들이 '따순이'라며 안쓰러워 할 정도로 엄마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유빈이가 대견하고 고마워서 유빈이와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보내며 엄마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한달 가량 지날 무렵 드디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빈이가 엄마를 때앗겨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날 유빈이가 가지고 놀던 놀이감을 언니가 가져가니까 그 때부터 엄마를 쳐다보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더니 놀이감을 다시 주어도, 엄마가 안아 주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었습니다.

유빈이는 울음 끝이 길질 않았는데 그 때는 달래도 그치지 않고 한참 동안 떼를 쓰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안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간신히 달래어 울음이 그쳤길래 엄마의 마음을 귀에 대고 속삭였더니 설움에 복받친 듯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엄마에게 서운한 마음이 많았나 봅니다. 밤에 자다가도 여러 번 깨어 울며 보채서 엄마를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4개월 된 동생을 안고 있으면 어느새 기어 와서 무릎에 올라오려고 합니다. 유빈이의 마음을 알고 난 후 엄마는 유빈이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가고 난 뒤나 휴일에는 엄마랑 아빠가 유빈이 차지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놀아 준답니다.

놀이방 선생님도 도와준답니다.

그 사건 이후로 4개월 된 동생을 가끔씩 꼬집기도 하지만 전처럼 생내질 않고 배고플 때만은 떼고는 떼쓰는 일이 적어졌습니다. 이제 유빈이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특소리

보육교사로 사회에 첫발을!

박 정희 (햇살놀이방)

아직 학기를 못 마친 학생 신분으로서 '교사'라는 막중한 직분을 맡게 되었다.

아이들과 익숙해지며 적응을 잘 해나가기 위해 배우는 입장으로서의 신참생활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박지예라 선생님께 일을 거의 떠맡기게 되어 마음속으로 미안한 마음이 든다. 특히 내가 학교에 가는 날은 빠지고, 논문준비로 칼퇴근(아이들이 귀가하자마자 퇴근)을 하며 마음을 교사 일에만 쏟아 붓질 못하니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좀더 신경을 써야했던 때에 준비가 안되어 있었다. 좀더 열심히 모습을 갖추기를 미루는 내 모습이 싫었지만 너무 조급해 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기로 다짐하곤 한다.

원래 내 성격이 그렇지 않은데 본의 아니게 아이들 부모님들께 다정한 인사 한마디, 얘기 한마디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무뚝뚝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쑥스러워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넘어가게 되고 그랬다. 하지만 아이들과, 그리고 부모님들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다. 지금의 내 모습이 교사로서 너무도 미흡하고 자신이 없더라도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것이다. 아참, 이 자

리를 빌어 나를 잠깐 소개해야 겠지.

동덕여대 아동학과에 입학하고서 나는 탁아소의 자원활동을 하게 되었다. 미아7동에 위치한 '어린이 사랑방'에 다니면서 어렵게 이 느낀 것은 내 삶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어떠한 예감이었다. 여자의 직감은 들어맞는지 내가 사랑방 선생님이었던 박지예라 선생님과 교사로서의 일을 같이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삶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연결고리로서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는 듯하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여러 갈래의 길 중 한 길을 택하여야 한다. 나는 첫 직장으로서 햇살놀이방과의 만남을 택했다. 노사연씨의 '만남' 노래가 나에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 그것은 우리의 바램 - 이었어 -"

햇살 아이들의 모습은 내가 만난 여느 아이들보다 뭐랄까 여리다고 해야 할까?

별로 난폭하지도 억세지도 않다. 물론 각자의 개별성은 있지만 평화로운 분위기이다.

아이들이 햇살처럼 밝게 그리고 따스하게 자라주었으면 한다.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마치 아이들과 춤을 추듯이 지내고 싶다. 계명

'97 교사 겨울수련회를 다녀와서

박 종미 (진주 들꽃 어린이집)

만에는 한다고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몸으로만 배우는 것 같아 는 들꽃 친구들에게 미안한 민들레 선생님이 촌발 날리지 말고 다녀오라는 원장님의 우려와 웃음을 뒤로 한채 천리길 한양으로 향했다.

- '2박 3일 동안의 97 교사 겨울 수련회' 그런데 우리는 3박 4일 동안이나 서울에 머물렀다. 왜냐하면 남부지방 폭설로 버스가 모두 결행이고 기차입석도 매진이라서 우려했던 고생바가지로 해서 더욱 기억에 남는 수련회다.

지택연 선생님들의 따사한 인사로 추위를 모른채 3일간의 일정이 후딱 가버린 것 같다. 첫째날의 지역운동에 대한 강의는 '농촌'이라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어린이집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사들이 해야될 고민들을 받아 안았으며, 유아교육 유형은 생소했지만 머리가 확끈 느낌이다. 또래 모임은 조금은 서먹했지만 또래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라도 얻었으니 큰 수확이었다.

방별 여흥시간을 마산 선생님과 셋이서 오붓하게 인생 이야기도 하고, 지택연이 우리 진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는 내용으로 열띤 이야기를 했지만 "지택연에 바라고 전에 우리가 지택연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반성도하자"라며 스스로 위로하기도 했다.

마지막 날의 과학실험은 신이 났지만 여유가 부족한 듯 많은 아쉬움을 남겨 주었다. 모든 일정 하나하나가 머리에 쑥쑥 들어오는, 입맛 당기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부추기

는 좋은 시간으로 기억된다.

겨울수련회에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크나큰 일을 해내고 왔다는 것이 뿌듯하다. 이른바 내가 주인이 되는 '한국보육교사회'의 준비위를 띄우는데 한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조직의 발전에 한표를 던졌지만 조직의 발전을 위해 한표의 책임을 지역에 와서 어떻게 다 할 것인지 걱정이 크다. 열심히 해야 여름수련회때 발걸음이 가벼워질텐데.....

97년 정축년의 한 해 계획에 웅골찬 목표가 생겼다. 29살 난 임자는 있지만 결혼은 아직 못한 미혼여성으로, 들꽃친구들의 선생님으로, 지택연의 주체로서, 기껏해야 똥기저귀 갖고 대소변 가려주고 변비 걸린 아이들 배내는 일에 끔찍대지 않고 아이들의 정신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양식을 공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듣고자 한다. 지택연의 모든 선생님들은 진주의 한 농촌에 위치한 '들꽃어린이집'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예나로 (진짜로) 잠시라도 잊지 말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바란다.

'우리네 아이들'이라는 하얀 밭에 까만 글자를 심어 우리들에게 지혜의 열매를 주시는 선생님들께 새해에 변함없는 건강을 빌며, 우리 들꽃어린이집에 유일한 노동자 유재수 노조위원장님의 3살박이 아들 지원이가 오늘도 부르는 감격하면서도 마음깊이 스미는 아빠는~아빠는~ 철의 노동자 노래소리처럼 모두의 소망인 노동악법이 하루 빨리 철폐되기를 바라며 겨울수련회의 기억을 접는다. 계명

성명서 모음

편집지주 : 최근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온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피압과 집회등, 학계, 종교계, 여성계도 법개혁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서명과 성명서를 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래는 본회의 상위 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나온 성명서의 결의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며

12월 26일 새벽 6시 신한국당이 기습적으로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 본 단체는 분노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한 전국민적인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전혀 무시한 채 밤고양이들처럼 새벽에 모여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켜 버린 것은 폭거이며 반의회적인 처사임에 분명하다.

3년전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를 자처하며 민주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안기부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안기부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와서 스스로를 부정하며 안기부의 정치개입, 직권남용 등 과거의 악몽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는 김영삼 정부는 취임이후 계속 천명해온 '개혁정책'이 허구였고 속임수였음을 인정하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하고 어이없게 만드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하여 안기부법 개정안을 발의한 신한국당 의원들 중에 지난 과거 안기부법에 의해 인권이 유린당하고 탄압받았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아무리 개구리 울聲이 적 시절을 모른다지만 국민들이 왜 그들에게 표를 던졌는지를 자성해야 할 것이다.

보통주부 1105인 선언

- 나라살림 망치는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십년전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길거리로 나서는 남편과 자식을 걱정하면서 우리 가족이 다치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그 후 6.29 선언에 속고 다시 국민의 노력으로 문민정부가 탄생했을 때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자식의 투옥으로 생이별하는 가족의 아픔이 없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6시 모든 가정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에 국회에 몰래 모여들어 7분만에 개악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신한국당 의원들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접하면서 나라살림을 이대로 망치게 둘 수 없다는 분노를 느껴 가정생활을 꾸려온 주부의 입장에서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고개숙인 남편의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걱정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된 노동법은 봉급생활자를 올리는 내용이 많습니다. 평생 묵묵히 일해온 사람들의 일자리를 불안하게 하는 정리해고제와 노동시간을 사용주 맘대로 고무줄처럼 늘일 수 있는 변형근로제 도입은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에 주름살이 더욱 깊어지는 내용입니다.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봉급생활자들에게 또다시 회생을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올바른 노동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국회의원들이 왜 날치기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서 여당 독주로 날치기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출범후 민주주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껴왔는데 연말의 기습적인 날치기는 아이들과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김영삼 문민 대통령은 문민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봅니다.

가정을 꾸리면서 우리 주부들은 가족 중에 독불장군이 있으면 가정이 불안함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정이 독선과 횡포로 가족을 억압할 때, 가정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국가의 가장으로서 국민을 억압하는 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도 가장이기를 바라는지 말입니다.

이에 우리 주부들은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와 이에 대한 노동자, 시민들의 전국적인 저항 사태를 보면서 더 이상 침묵하고 묵과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주부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주부의 선언 >

1. 고개숙인 남편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개악된 노동법을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2. 과거 독재정권의 상징인 안기부법의 수사권 확대는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3. 공권력을 앞세워 노동자의 총파업과 민주세력을 탄압할 경우 더 큰 불행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합니다.

1997년 1월 13일

결 의 문

‘여성유권자 주체화 운동’으로 날치기 정당, 신한국당을 대선에서 심판하자!

- 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개악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논의하라! -

지난 해 12월, 신한국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 안기부법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반국민적인 악법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간 한달 여에 걸친 지속적이고 원강한 노동자의 총파업과 이를 지지하는 여성계, 종교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의 저항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여당에 의한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 개악은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반민주적인 폭거인 것이다.

1.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법의 개악, 국민의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안기부법 개악은 가정과 국가의 민주적 발전과 평화와 안정을 영원하는 우리 여성들의 바램을 묵살한 반국민적 폭거이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법을 개정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의 바램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제계의 입장에 치우침으로써 또다시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천양고무적, 불고지적은 그 자체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며 그동안 정치적 반대자와 민주세력을 탄압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 온 것을 만천하에 알고 있다. 이러한 악법을 철폐하기 보다는 그에 대한 안기부 수사권을 부활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유지, 연장시키기 위해서 정보공작 정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임에 다른 아니다.

2. 지난 21일, 국민들이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영수회담의 결과는 국민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 사회, 노동계는 날치기된 악법의 전면 무효화와 노조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손해청구, 징계 철회의 입장을 가지고 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노동법·안기부법을 인정함으로써 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거리로 뛰쳐 나오게 했다. 그러나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입장을 고집함으로써 국정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무책임성을 드러냈다. 이렇듯 본질을 회피한 미봉책으로는 결코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가라앉힐 수 없다.

3. 이에 우리는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안기부법의 전면무효화와 민주노총 지도부만이 아닌 410명의 고소고발 대상자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 철회, 손해배상 청구, 해고 등의 징계 철회의 기본적인 입장을 재천명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여성들은 97년도 대통령 선거서 전국적으로 ‘여성유권자의 주체화 운동’을 벌여나감으로써 반드시 신한국당의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를 표로서 심판할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1997년 1월2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제 11차 정기총회 참석 대의원 일동 / 회원단체 연명

소식과 소식

‘97년 겨울수련회 및 제12회 정기총회

지난 1월 3-5일, 2박3일간 송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지탁연 회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 연합회 겨울수련회 및 정기총회가 있었다.

수련회에서는 지역보육운동의 진로와 과제에 대한 강연과 지탁연의 교사조직의 전망에 관한 발제, 지역조직 사례 발표, 유아교육 유형에 관한 강의(레지오 에밀리아, 하이스코프), 어린이 요가, 교사의 올바른 과학철학 정립을 위한 강의가 있었고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교사들의 회포를 푸는 공동체놀이가 흥겹게 진행되었다.

총회에서는 97년도 사업계획 인준과 한국보육교사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함으로써 8월에 임시총회를 거쳐 정식 한국보육교사회를 결성하기로 회원들간 높은 결의를 모았다.

교사 재교육 보고

지난 6월 소식지에 ‘영유아관찰과 교사의 자기성찰’이란 글을 통해서 윤선영 선생님께서 교사들에게 연구일기 쓰기를 제안한 바 있다. 연구일기를 쓰는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의 교육행위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고 아이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교육활동에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기록과정에서 교사가 자신을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음으로써 자신의 교육행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수는 있지만 때로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위가 과연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어질 때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일기가 비록 사적인 기록이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다른 동료교사와 자신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나누고 의문점을 함께 토론타면 보다 나은 대안의 교육모형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회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교사재교육을 시도하였다. 보육교사의 재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러하지 못했던, 교사 개개인의 현장교육경험을 검토하고자 한다.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교사가 쓴 연구일기라는 분석적 기록을 통해 들여다봄으로써 교사자신과 아동, 부모, 프로그램, 환경 등을 의식적으로 고찰하고 평가하는 동시에 교육활동의 지평을 넓혀가고자 함이 이 재교육의 한 목적이요, 교사자신과 아동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교사가 아이들과 밀도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함이 또 하나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즉 현장연구와 자신의 교육행위를 객관화시켜 스스로 분석, 평가하는 훈련을 통해 교사는 전문가로서의 의식을 갖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재교육은 지난 11월 1일 첫모임을 가진 후 2주에 한번 씩 모이고 있는데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선영 선생님께서 이 모임을 지도해 주시고 있다. 교육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열의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멀리 부산에서 매번 올라오시는 교사도 있다. 부산에서는 한 교사가 참여하지만 교사회의를 통해 이 모임의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연구일기를 쓰고 있으며 다른 집 교사까지 이 교사회의에 참여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다.

매번 교사들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연구주제를 정하는데, 초기 적용지도, 소외되는 아이

를 어떻게 도와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줄까?, 제벌에 관하여, 식사, 행사지도를 주제로 토론하였고, 다음 번에는 부모와의 협력작업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 날치기 무효 도깨비극

1월 15일 노동계 총파업과 때를 같이해 여연에서는 색다를 집회를 진행하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하였다.

여연 소속 회원인 본회, 여성의 전화, 여성민주회 등은 15일 종로 조흥은행앞에서 약 100명이 참석하여 '안기부법·노동법 날치기 개악 무효화를 위한 여성도깨비극 한마당'이 있었는데 여성단체회원들이 도깨비로 출연, 속곳에다 '악법철폐'라는 글씨를 새겨 장대에 매달아 주위를 돌며 구호를 외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행사는 아라리오 민요페 노래공연과 속곳을 불태우고 탑골공원까지 평화행진을 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지은희 대표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사회적 불안이 있을 때 남자들은 바깥 출입을 금지하고 여성이 직접 나서서 여성의 속곳을 장대에 매달아 성황당을 돌면서 소리지르는 의식을 행해왔다. 이러한 여성들의 고유 저항의식을 현재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으로 인해 조성된 가정과 사회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20세기의 여성 도깨비 극으로 열겠다는 의미로 준비한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제11차 정기총회가 1/23(목) 오후1시부터 종로성당에서 있었다. 단체 소개 및 인사나누기를 시작으로 정세보고(안기부법, 노동법 날치기 개악된 12/26이후의 투쟁일정등-정강자 노동위원장)를 통해 현재 우리가 서있는 사회정세의 상황과 우리의 역할을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우정, 이효재 고문, 이미경, 이영순 지도위원의 덕담을 들으면서 그간 10년을 더듬어보며 앞으로 더욱 힘찬 활동을 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1996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199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보고, 승인으로 1부를 끝내고, 맛있고 우아한 저녁식사(뷔페)와 더불어 감동과 화합의 자리인 2부가 있었다. 2부의 가장 관심 있는 프로그램인 모범회원단체상에는 대구여성회가 받았는데 3년 연속 수상이었다.

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

97년 1월 23일(목) 오전 11시부터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서울시 여성복지과 주최로 '여성지도자 신년인사회'가 있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새살림회 김 남희 회장(조순 서울시장 부인)의 인사말과 새살림회 임원들의 소개, 각 단체 대표들의 인사말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오찬을 하면서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사람들

◆ 결혼을 축하합니다.

◆ 북부지역위원회 동근나라어린이집 교사, 김선자선생님이 지난 12월29일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오랜 보육교사생활을 바탕으로 행복한 가정꾸리기 바랍니다.

◆ 안산지역위원회 회원이며 본회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일할 심선경선생님이 소문난 열렬한 연애를 마치고 드디어 1월 12일에 결혼식을 성취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변미양회원의 결혼축하연이 있습니다.

◇ 일시 : 2월 23일(일) 오후 2~5시 ◇ 장소 :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1층 아트라운지

◆ 출산하셨습니다.

◆ 서정은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전소장이 위험한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였고, 북부지역위원회 햇살놀이방 김미숙전교사와 박지혜라 현교사 두분이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겨울에 낳은 아이들 건강에 유의 하고요, 산모들 몸조리 잘해서 무릎 시리고 발시렵지 않도록.....

◆ 보내주셨습니다.

◆ 국립국악원(원장 이성천)에서 '국악동요선집' 6집과 7집 CD와 악보를 보내주셨습니다. 6집에는 '95 창작국악동요제의 입상곡이 실려있고, 7집에는 '96 국악동요제의 입상곡 10곡과 중진국악 작곡가들에게 위촉한 창작국악동요 5곡이 실려있습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설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에서 자원봉사 자료목록집을 보내주셨습니다.

◆ 북부 햇살놀이방에서 햇살소식지를, 익산 하늘땅어린이집에서 하늘땅 이야기를, 꾸러기동산어린이집에서 꾸러기동산동, 보육시설에서 교사와 자원활동가 그리고 부모들이 함께 만든 귀한 소식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 연합회 96년 12월, 97년 1월 활동일지 ■

12/11 집행위원회의

13 집행위원회의

수련회준비팀 모임

14 집행위원회의

17 서울경인 지역대표자회의

총회준비위원회

20 수련회준비팀 모임

22 총회준비위원회

23 집행위원회

97 1/3-5 겨울 수련회 및 제12회 정기총회

13 집행위원회의

20 집행위원회의

23 여연 정기총회

27 집행위원회의

30 여성평화의집 이사회

보육교사 2급

■ 김성균 유아음악교육-교사를 위한 연구과정

- 지원자격 : 원장, 현직교사
- 개강일시 : 매년 3월, 9월
- 수강기간 : 6개월간(매주 토요일)
- 정 원 : 40명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토요일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월 회 비 : 80,000원
- 지도교수 : 김 성 균

강 의 내 용			
제1강의	노래를 통한 유아교육 주제 강의	제11강의	악기를 통한 유아교육 악 기 놀 이 1
제2강의	유아기와 음악	제12강의	악 기 놀 이 2
제3강의	동요지도 교수방법1	제13강의	악 기 놀 이 3
제4강의	동요지도 교수방법2	제14강의	음 감 놀 이
제5강의	인 지 영 역	제15강의	리 들 놀 이
제6강의	언 어 영 역	제16강의	리 들 합 주 1
제7강의	정 서 영 역 1	제17강의	리 들 합 주 2
제8강의	정 서 영 역 2	제18강의	리 들 합 주 3
제9강의	신체영역, 표현력 발달	제19강의	듣기를 통한 유아교육
제10강의	사 회 영 역	제20강의	감상지도, 수료식

- 수강장소 : 김성균 유아음악교육연구소
- 접 수 처 : 449-1591

■ 원광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아 감각놀이 탁아생 모집-3세이상 장애아동 탁아 및 교육치료

- 종일반 : 오전8시-오후6시(월17만9천원)
- 오전반 : 오전8시-오후2시(월12만5천원)

- 오후반 : 오전12시-오후6시(월12만5천원)
- 주소 : 서울 중랑구 신내동 572-2
- 전화 : 02)438-2691_4

'97교원연수, 예비부모교육, 보육교사 양성교육
교육과정별 계획 인원

구분	과정	횟수	계획인원	비고
유아교육원	교 사 연 수	5	660	9박10일 교육청 위탁 1.2.7.8월
	장학요원 연수	3	360	2박3일 교육청위탁(5.6월)
	장학사 연수	1	50	9박10일 교육청위탁(4월)
	유아교원 워크숍	3	680	2일(7.30-31, 8.2-3, 11.1-2)
	중국연변조선족 유치원 교원연수	2	250	2일(6월)
	유아교육전문가연수	3	100	2일(4.8.11월)
	소 계	17	2,100	
보육교사	교 육 원	1	200	1.100시간(1년) 서울시위탁(3.14-2.10)
	소 계	1	200	
부모교육원 및생활교육	직 장 여 성	10	1,200	2박3일(3월-11월)
	부모교육 과정	3	150	1박2일(9월-10월)
	육아시설 여고생	1	290	3박4일(1월)
	육아시설 남고생	1	290	3박4일(1월)
	소 녀 가 장	1	100	3박4일(2월)
	어린이 생활교육	40	1,600	2시간(4월-10월)
	청소년 생활교육	2	240	1박2일
소 계		58	3,960	
총계:14과정		76	6,260	

■ 공동육아연구원 교육 안내

<공동육아 방과후 프로그램 교사교육>

- 기 간 : 3월-5월
- 대 상 : 공동육아 방과후 프로그램 교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분
- 시 간 : 매주 월.수 7시-9시30분
- 인 원 : 30명
- 장 소 : 공동육아연구원 (사당역, 도보5분)
- 수강료 : 30만원(연수비 포함)
- 접 수 : 2월20일까지 외화은행 187-22-00374-4 예금주 : (사)공동육아연구원

<영역별 전문과정>

- * 미술영역 : 담당) 신현경 선생님
- 경원대 교수, 공동육아연구원 전문위원
일정) 1997년 3월-5월
주 1회
수강료) 30만원
- * 국악영역 : 담당) 임수정 선생님
- 중앙대 교수, 공동육아연구원 전문위원
일정) 1997년 3월-5월
주 1회
수강료) 30만원
- * 인형극 영역 : 담당) 임정미 선생님
- 서울예전 교수, 공동육아 전문위원
일정) 1997년 3월-5월
주 1회
수강료) 30만원
- * 특수교육영역 : 담당) 김희수 선생님
- 공동육아연구원 전문위원
일정) 1997년 3월-5월
주 1회
수강료) 30만원

<공동육아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을 모십니다.>

- 대 상 : 원장 지원자 00명
- 학력, 경력 : 전문대졸 이상, 보육관련 경력자
- 교육프로그램 : 강좌, 세미나 및 어린이집 순회연수
- 교육기간 : 주1회 3개월(교육기간중 원장채용 가능)
- 전형방법 및 날짜 : 2월21일 서류제출 마감/ 2월28일 면접
3월 3일 발표/ 3월 8일 연수교육 시작
- 제출서류 : 이력서, 사진, 자기소개서(A4용지 3매이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추천서 1통
- 연수비 : 50만원(어린이집 순회연수비 포함)

*** 문의처 : 3471-0606 / 522-3851

■ 삼성어린이 박물관 행사

주제 : 이집트 관련 행사
일정 및 진행 장소

행 사 내 용	일 정	진 행 장 소
사진 및 동물 전시 상 형 문 자 판 그 림 색 칠 판	2월 1일 - 3월2일	오리엔테이션 공간
이집트 소개 수업 발 굴 이 야 기	화, 수, 토 2:00 목, 금, 토 2:00	어 린 이 방 송 국
피 라 미 트 만들기 이집트식 그림 그리기 이집트 장신구 만들기 파라오 가면 만들기 분 장 행 사	2 월 2 일 2 월 6 일 2 월 16일 2 월 23일 3 월 2 일	아 트 방

삼성어린이개발센터는 보육현장의 우수한 교구교재를 발굴해 적극적인 개발을 지원하고
자 교구교재 공모를 실시한다.

● 공모주제

- 주제1) 유아를 위한 신체활동과 그 활동을 전개시키는 데 필요한 창작음악.
- 주제2) 유아를 위한 신체활동과 그 활동을 전개시키는 데 필요한 교구.
- 주제3) 영유아를 위한 형질 교구.

● 공모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처: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 자료실
- 접수기간: '97년 2월 28일(금)
※우편접수는 마감일 재단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삼성생명빌딩 16층 우)100-716

● 개발지원금

- 대상: 1,000,000원(1명)
- 우수상: 500,000원(약간 명)
- 장려상: 300,000원(약간 명)

심사 결과 발표는 '97년 3월에 있을 예정이며 전국 어린이집, 놀이방 및 대학의 아동관
련학과, 대학의 음악관련학과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02)259-7875로 문의 하십시오.

편집부에서

■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새해벽두부터 어수선한 나라안의 소식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지만 옛부터 우리의 백성들은 난관을 슬기롭게 대처했듯이 머지않아 힘있는 우리 민초들의 목소리가 관철될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 이번 소식지도 많이 늦었습니다.

조직선전부장이 가족의 상을 당해 며칠 자리를 비우는 관계로 소식지가 늦게 발간되어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월 초에 소식지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는데 그때 그때마다 일이 생기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어린이평화학교 연구원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건강하게살시다'란에 원고를 집필해 주시던 어린이 평화학교에서 원고청탁기간이 끝나는 관계로 이번호가 마지막 원고가 됩니다.

어린이 건강에 대해 새로이 접근하여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본회에 뜨거운 애정으로 좋은 원고를 주신 어린이 평화학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 이정님, 조소년, 안선준, 임우정, 최난희, 이태숙, 정지영, 이금주, 빈혜영, 윤혜란
6개월 구독 : 김조순, 홍정숙, 님의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네 아이들」 제작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특히 본인명의로 아닌 타인명의로 단체명의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재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시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지역인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외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액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알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어린이집 · 놀이방의 상해, 화재보험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정보연구부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Research

늘푸른대리점

보육시설전문대리점이 충실히 안내합니다.

- 보육시설이 위험을 발견하고 방지대책을 세워 재물손해·인명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보육시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의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각 시설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안전한 보육환경, 적절한 보험선택, 수익금의 보육사업재투자율 목표표출발했습니다.
- 보육사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에 실속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아동사고!

5,775원으로 최고 1억 1천만원 보상에
작은사고에서 큰사고까지!

상담전화
TEL. 271-1547~8
FAX. 271-1548
BP. 015-943-3954

늘푸른대리점은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를 PC통신으로 제공하는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보육시설의 보험가입과 상담편의를 위해 개설했습니다.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비고	
원아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2,800원				1인당	
	의료상비 100만원						
배상책임손해 (1인당)	대인 1인당 1사고당 1억원	2,915원				배상책임보험 학교 경영자 특약요율의 80%적용	
	대물 1사고당 1,000만원						
교직원상해손해 (1인당)	사망, 후유장애 1,000만원	6,510원					
	의료상비 100만원						
재산손해	전통 및 집기비용 (보험가입금액 100만원당)	화재손해 기본보험료(화재요율 8% 적용)					화재보험 일반물건 최종 적용요율의 80% 적용 즉, (화재보험 일반물건 기본요율) ×(1노상인 할인요율)×80%
			1급	2급	3급	4급	
		1등지	6,220원	9,890원	15,725원	24,225원	
		2등지	7,820원	12,485원	20,315원	31,295원	
		3등지	9,230원	15,215원	24,735원	38,030원	
		4등지	11,355원	18,235원	28,240원	44,650원	

(늘푸른 대리점에서 추천하는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